五刊 朝鮮日報

本紙特刊並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徐銓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 社說

## 家族主義를 打破하라

一

東洋人과 西洋人을 比較하야 前者가 後者보다 文明的으로 뒤떠러진것은 누구나 否認치못할것이다. 特히 東洋人中에도 朝鮮人의 더뒤떠러진것은 누구나 認定할바다。

그러면 가튼 人類로서 웨 西洋人은 前進하고 東洋人 그中에도 朝鮮人은 後退하얏는가。

或은 體質의 差異를 論하는者잇고 或은 地域的으로 相殊한것을 論하는者 잇다。卽 東洋人은 體質가 西洋人만 못하고, 地域的으로 生存鬪爭치 안는 平穩한 地帶에 居住하는때문이라 하는것이다. 體質의 差異, 地域의 相殊가 모다 그 文明을 決定하는 重要한 條件이 되지안음이 아니다. 그러나 吾人의 見地로서 하면 文明의 遲速와 自然的條件에 달린것보다도 生活制度에 만히 달린가 생각되다。

二

그러면 生活制度란 무엇인가. 生活制度란 곳 人間의 日日營營히 生을 維持하는 狀態를 말한다。卽 國家的이라든가 社會的이라든가의 公生活을 말함이 아니오, 個人或은 一家族의 私生活을 말한다。

그런데 이 私生活을 보면 朝鮮人은 一家族主義的이다。特히 朝鮮人은 一家族이 祖父母, 父母, 自己, 子女等 凡 三四代의 家族으로 構成되고, 三, 四代의 家族은 그中의 一人인 最尊屬에게 所屬되어 經濟, 其他 온갓 生活을 支配밧는다。 그러므로 多數는 家族이 三十歲를 넘어도 獨立的自主的 生活意識이 업시 父老에게 依賴하는 性이 생기고, 따라 多數 家族은 猜忌, 暗鬪속에서 지내간다。

이와 反對로 西洋人은 個人主義다。그리하야 各家族은 夫婦를 原位로하고 二代以上의 家族이 두물게 同居하며, 따라 責任은 夫婦兩人의 억개에 젓슴으로 獨立的 生活意識이 强해지고 따라서 家族間에는 平和가 잇슬뿐이다。

그럼으로 積極的 自主的 個人을 基礎로한 西洋民族 또는 國家가 自然 富强하여지고 消極的 依賴的 個人을 基礎로한 朝鮮人이 今日과가티 後退한것은 決코 偶然한일이 아닐것이다。

三

勿論 家族主義의 美點도 잇다。純良한 相扶相助意識과 親愛의 觀念은 다 그하나다。그러나 이 家族主義 鄕土主義는 結局그範圍가 狹少하야 固陋하고 偏僻되기쉽다。家族主義者에게는 家族과 鄕黨의 觀念이 잇슬지언정 民族과 社會는 念頭에 업다。이것이 取할만한 價値가 업거니와 이歷史上의 封建的 殘滓인 家族主義는 當然히 交通의 發達、經濟生活의 變化에 따라 消滅될 運命에 잇다。

四

이와가티 論하면 家族主義는 當然히 淸算해야하고 또 淸算될 運命에 잇거니와 이家族主義가 아주 뿌리를 끈치못하얏슬뿐아니라 最近經濟發展의 反動으로 다시 深刻하랴는 傾向이 잇는것은 可憐한 일이다。朝鮮一戶當 人口는 西洋四人 日本五人에 對하야 六人을 넘지안으매 一家族에는 다시 親戚 其他 眷屬이 더욱 增加하지안는가。

吾人은 抱負기픈 新年에 朝鮮人이 家族主義를 打破하기를 提起하는 바이다。

# 米國海軍兵員의 擴充整備를 進言

## 現在兵員配備론 國防上危險

## 航海局長이 必要力說

【聯合華盛頓卅一日發】 아메리카海軍을 條約所定의 限度까지 擴張하려는大建艦決議案이 來三日의議會에 上程되기로되야 各國의注目을集中하고잇는此際에 아메리카海軍省航海局長 『리하이』少將은 三十一日『스완손』海軍長官에 對하야 아메리카海軍兵員이 節約政策의結果 定員數보다 現著히 減少하여잇는事實을指摘하야 艦隊兵員의擴充整備를進言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아메리카海軍의乘組員은 節約政策의結果 漸次遞減되야 現在의兵員配備로서는 軍事的能率의點으로말하드래도 不充分할뿐안이라 一朝有事의際에備할國防上의見地로서도 實로危險千萬한일이다

# 三四年의米財界

## 大統領의政策奏效?

## 一般的으로期待

【聯合紐育一日發】 波瀾과財政的實驗의 歷史的一年을보낸 米國財界는 玆에光明한一九三四年을마지하엿다 今年도亦是 자못多事할 모양이다 卽昨年中에着手한 大實驗이그實際的結果를보일터이오 또더욱새로운實驗에도 着手하리라고豫想되야루즈벨트 大統領의말을빌면新方策은 米國財界로하여금 實驗에一步를 밟게할것이다그러나米國財界의 指導者들은新年財界의 豫想에 對하야 모다愼重을 極한 態度로 正確한豫想은 困難하다고 述하나 오직何人이나 異論이업는것은 昨年의 陰鬱한空氣에比하야今年은 斷然光明하다고모다希望을包懷하고 新年을마지하엿다 現今米國財界의 好材料를擧하면 다음과갓다

一、米國뿐이안이라 全世界各國에亘하야 回復의徵候가보인다

二、『루즈벨트』大統領에對한國內의信任도 또한强하고『新方策』은 今後더욱進展이豫想된다

三、產業界의活況과 同時에失業者는 減少하고 賃銀도亦是上昇하엿다

四、佛貨排底의結果 貿易은漸次改善되고 遲遲하나 物價도 此에 追從하게될것이다

五、農民의收得도良好하고都會의年末商品賣行도豫想外에조왓다

六、禁酒法의撤廢、蘇聯邦承認도好材料이다

他方에잇서는一方的으로 高物價政策을目標한 루즈벨트大統領의金政策은 國內에잇서硬貨主義軟貨(紙幣)主義의兩派가激烈한論爭을惹起하야 政府의窮極政策은반드시 分明치안음으로財界의通貨에對한 不安은依然除去되지안코 그活潑한景氣回復의步調를著顯히 妨害하고잇다는것은다툼수업는事實이다來三日開催되는新議會는銀을中心으로한通貨政策復興計劃擴大에件한膨脹豫算을中心으로루즈벨트大統領의新方策이熾烈한論議의焦點이되리라고 豫測된다고하드라도今日에는景氣回復을爲하야일을하지안으면안된다는것을何人이나 認定하는것임으로上下兩院이다 루즈벨트大統領에對하야 友宜的協力을不惜하리라고보여 結局議會는루즈벨트大統領에政策을 承認하야그實行 乃至擴充에必要한豫算과權限을與하리라고 豫想되다따라 三日新議會에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致書는一九三四年 米國財界의大勢를 指示하는것이라고하야 多大한關心下에注視되여잇다 米國財界有力한指導者들의 新年에對한豫測을求하면 左와如하다

▲반더립氏曰 ‖(銀行家요富豪)‖ 一九三四年我等이 社會的又는經濟的方面에잇서 새로實驗한結果眞正으로重大한歷史가製作될것이다 諸工業은一九三三年의 그것을틀림업시凌駕할것이나 利潤을伴할는지안할는지는오직 政府行動如何에잇다

▲스론프氏曰 ‖(제너랄모타스社長)‖ 새로我等이 產業復興에잇서政府에協力하야 我國의社會秩序를 改善할事態를考究할目的으로 各種經濟的提案을充分히또虛心坦懷로精査치안으면안된다

▲화잇트니氏曰 ‖(紐育株式取引所長)‖ 勿論各種重大問題가 我等의前途에橫在하고잇다는것은疑心업스나 一九三三年에比하야 一般心理에는 非常한大乘的變化가잇슬것은 確實하다 一般에信賴하는感情이 나타나잇다 이것이 明確히諸證券市場에反影되여잇다

▲도텔氏曰 ‖(紐育棉花取引所長)‖ 米棉의消費가 增加되고또政府의努力으로 過剩生產도減少되여잇슴으로 棉花時勢는 棉花栽培와 生產者가모도景氣가조와질것이다 또一弗이低落되야 米棉의輸出에도만흔도움이잇슬것이다

# 米財務長官에 몰氏正式就任

## 우딘氏는正式辭任

【華盛頓卅一日發】 昨年十一月十五日以來 財務長官代理로서 事實上米國通貨政策을操理한헨리、몰겐소氏는 一月一日附로 正式으로財務長官에就任하고 賜暇休養中의『우딘』前財務長官은 同時에正式으로 職이辭免되엿다 몰겐소氏의就任宣誓式은 一日朝『화잇트하우스』에서 루즈벨트大統領及 몰겐소長官家族列席으로行한바루즈벨트大統領은 右更迭公表가『인풀레이순』問題에關聯하야 財界에 意外의 衝動을 及할것을 考慮하야 우딘前長官의 辭任이 全혀 健康에基한것임을 明示키爲하야 大統領과우딘氏間에 交換된書翰을 公表하얏다 이에依하면 우氏가正式으로辭表를 提出한것은 十二月十三日로 健康이조치못함을 詳述하야 懇切히 辭任認許를乞한것이오 이에對한 二十日附의大統領書面은 卿의辭任은 余에對한 큰悲哀이나 卿이 이以上健康을 害함은 余의참을수업는일임으로 願컨대 充分히 靜養하고 一日이라도 速히 快復되기를 希望한다 그리고 回復됨에 따라 國家를爲하야 再次 奉仕를 求할것이라고 懇曲한바를 述하얏다

寫眞은 上 몰겐소氏 下 우딘氏

## 蘇中央執行委員會 政策全部承認

【聯合莫斯科一日發】 卄八日以來開會中인 蘇聯邦中央執行委員會議는 一日政府의內治外交政策과밋 一九三四年度國民經濟計劃案全部承認하얏다

## 國際決濟銀行副總裁 메르히올博士逝去

【聯合伯林卅一日發】 國際決濟銀行副總裁 메르히올博士는 卅一日逝去하얏다 享年六十二

檀園金弘道筆 (成鎣燮氏所藏)

# 各方面注目밧는 老大한增稅計劃

## 農村負擔輕減案確立策

【聯合東京電話】 政府는內政會議의 決議에基하야 農村負擔輕減의 根本方策確立을爲하야調査研究를하기로하엿다 그러나 本問題는對議會策으로서 政治的意義를多分으로有한것임으로 政府一部에는農村에서 政治的 社會的諸情勢에鑑하야可及的速히 그實現을期하고저 積極論은有力하게되어 關係當局은九年度最重要政策의하나로 愼重하게 具體的確立을期치안으면만된다고 期待되여잇다 村負擔輕減策樹立을爲하야는 國稅地方稅의 各般에亘하야根本的改革을必要로함으로 이것을 倂行하야 懸案의財政根本對策이드되여議題에 上할模樣인바 稅制改革은 財政計劃樹立을目標로하는 廣範圍의 增稅計劃을包含하고잇슴으로 財政上의 歲計 均衡策으로서 各種稅目을通하야 二億乃至 三億圓의增收案을 세울必要가 잇다고하야이러한巨額의 增稅案을한꺼번에斷行하든지 數年度에亘하야漸進的으로 實行할는지또는何年度부터 實施할는지問題될터인데 엇더튼 財政當局으로서 各般에 及할影響을考慮하고 增稅案은 될수잇는대로한꺼번에 斷行할것이라고 稱하고잇고 또農村負擔輕減案은 增稅計劃과不可分 關係에잇슴으로이實施를 急하게되면政府의增稅案도同時에 實施할必要가잇다고 稱하고잇슴으로아마九年度中에成案을 得하야十年度부터實施될것으로 생각하는데增稅計劃이未曾有의것인만큼各方面에非常한衝動을興할것으로이미只今부터前途가注視된다

## 英國外務次官을 國璽尙書에任命

【電通倫敦三十一日發】 英國外務次官 이든大佐는三十一日附로國璽尙書에 任命되엿다그러나外務次官의 激職은辭할模樣이나國際聯盟에 關係잇는일만은 繼續하야 續行할터이다

## 昨年中本社의 主催後援事業 (續)

▲京城保育學校主催 秋季音樂大會(十月十九日)
△主催養正高普校友會 第二回安軸承獨唱會(十月六日)
▲務明學會 主催 科學大講演會(十月二十六日)

十一月

▲朝鮮體育會主催(第五回)朝鮮中等校씨름大會及全朝鮮씨름大會(十一月十一日)
▲朝鮮體育會主催全朝鮮武道大會(十一月十二日)
▲梨花專門同窓會主催梨專빠사大會(十一月三、四日)
▲普專學生會主催 第七回男女中等學生雄辯大會(十一月十三日)
△本社主催 金文輔獨唱會(十一月二十五日)
△朝鮮體育會本社共同主催第四回全朝鮮力技大會(十一月二十九日)

十二月

▲男女神學生Y、M、C、A、主催聖劇大會(十二月九日)
▲朝鮮體育會主催 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十二月一、二日)
▲經濟研究會主催 經濟講演會(十二月十五日)
▲O·K레코─드商會主催 歲暮慈善音樂大會(十二月二十三、四日)(完)

## 人事·集會

▲安吉弘氏(大阪東亞通航組合理事)二日入京
▲韓相五氏(同上)同上

## 八面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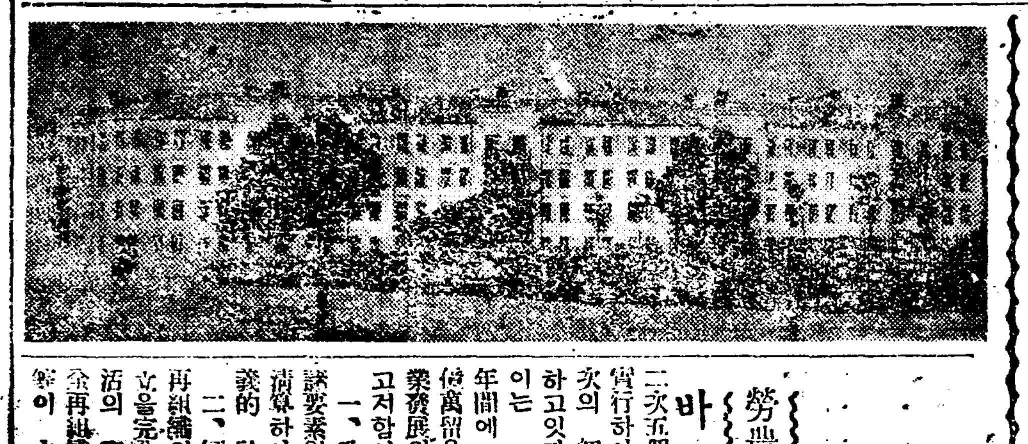
◇佛國이獨逸의 要求를拒絕하면, 도리혀再軍備를促進한다고, 英國어걱정。

◇面騎改造에손을대일能力은업서도, 남의집살님에干涉할誠力만은가진모양。

◇中央軍과福建軍의 싸움보다는, 共產軍의 進出이더큰問題。

◇그래도, 汪兆銘대신에胡漢民만들어세우면, 蔣介石의政權은小康을어들지니。安心(?)。

**今日本紙十二面**



# 蘇聯經濟의實績 (三)

金世鎔

### 勞農文化의成功 (續)

바 五個年計劃의完成은第二次五個年計劃으로 即時移行을實行하야 一九三三年부터第二次의 初年度計劃코─스를經過하고잇다。이는 一九三三─一九三七의 年間에 一、四〇〇─一、五〇〇億萬留을 投下하야第一次의產業發展의 鋸齒形的連線을업새고저함이니 即

一、政治的으로는 資本主義諸要素와 階級을 最後的으로淸算하야 無產階級의 社會主義的 社會의建設

二、經濟的으로는 國民經濟再組織의 完成、都市 農村의對立을完全廢棄 諸產業과住民生活의 高度한技術的─電化의完全再組織 極東蘇聯의自給自足等이 主要目的이다

이計劃의 到達點은 第一次五年計劃의 末期成績에比하야

A、機械製造工業을三─三、五倍로增加하고 諸產業部門이需要하는 一切의國產機械를自給自足함

B、電力生產을 六倍로 擴張(一七〇億킬로와트를 一〇〇〇億으로)

C、燃料工業에잇서 石炭의九千萬噸을 二億五千萬噸으로 石油 二千八百萬噸을 八千萬─九千萬噸으로

D、運輸工業 鐵道는極東을主로하야 西伯利亞 北部中央亞細亞方面에 二萬五千粁─三萬粁의延長

E、輕工業 食料品工業의三倍以上

F、農業─集團農場으로完全統一하고 農民大衆의社會主義再敎育에잇다

### 資本主義의脅威

五個年計劃의 完成은 蘇聯經濟를 國際經濟의 水準에決定的인變化를 이르켜다。經濟競爭에잇서 決定的役割은 生產物의 量的增加問題이다。그러나最後의 勝利를 確保하는 條件은 生產力發展의速度일것이다 後進國의 工業化는 先進諸國產業의 重心을移動하야 其生產템포를 減退케하는것은 부르조우 經濟學者도 認定하는同時 事實問題로되엇다。이現象은 蘇聯對資本主義諸國과의 關係以外 植民地對帝國主義 國家間에도適用되는 傾向이다。

蘇聯과 先進諸國의五個年間生產템포比較(一九二八年에 對한一九三三年의百分比)

| 國別 | 石炭 | 鋼 | 棉花消費 | 鐵道 | 電力 | 石油 |
|---|---|---|---|---|---|---|
| 米國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英國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獨逸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佛國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蘇聯以外世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illegible] |
| 蘇聯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上表에對한 說明은 不要할것이다 卽 蘇聯은 過去五個年間 先進諸國에比하야倍乃至 四倍의 速度로 經濟的 凌展을 하여나왓다。이것이 蘇聯으로하여곰 世界經濟에 對하야 갓까운將來에 質과 量에잇서 能히一[illegible]할確信의根據가 되엇다。이와가튼 急速한 템포는五個年後 今日에蘇聯으로하여곰石炭採掘量과 鐵道運輸業에잇서 世界第最高位를 占領하고 綿花消費量增加도 世界第一이며 製鋼及電力은米國을除한外의最高位에서려하엿다。萬一增加 絕對數로보면 鋼鐵以外 石炭、石油電力 綿花量이 米國을凌駕하고잇다。

輸出計劃에잇서 蘇聯은經濟的自給 自足經濟임으로 發展

西伯利亞集團農場의트랙터

이업다고한다。勿論五年計劃은 生產增大에急速한 템포를 豫定하여 나왓음으로 輸出貿易은 다른部門에 比하야 增加率이相對的으로 低位에잇스나 一九三二年度 全生產高에對한 輸出量은三%─五%로서 絕對的으로는非常히 增加하엿다。

世界各資本主義國家는 蘇聯이石油、小麥等其他生產量의三%가自國領域內에侵入한다고하야 警戒와防遏에 努力한다。蘇聯承認을 米國小麥市場의騷亂은이것의 代表的事實이엿다。蘇聯石油가歐羅巴市場을 威脅하고 近東市場을 獨占한我極東諸國에서 米國、英國의努力을驅逐하는 氣勢를 보이고잇는 것과 世界小麥市場의『바란스』를 攪亂하고잇는事實은 함께 五個年計劃의完成이가진 바强力한蘇聯經濟의 國際性을 말함이다。

요컨데 蘇聯은 食慾이旺盛한 能率的인健康體이다。超人的 體力인 資源을가지고 無限한食欲인 機械其他製品을 外國서輸入하야 效果的精力과能率을 發揮하여간다。

(커트는이바노보、보스네센스크의 勞働者共同住宅)

# 謹賀新年

堤永市

京城府麻浦洞三番地 綿絲布木 雜貨紙物 石油鑛物 順興商會 主 池点童 電話龍山一三七七番

京城府樂園洞 協成實業學校 電話光化門一三七三

協成實業學校 吳翊殷 (電話光化門一三七三)

大東商業學校校長 金萬壽 電話光化門二三七六番

京城府樂園洞二二三 校洞旅館 主 趙重植 電話光化門一八七七番

禮山

禮山郡光時面瑞草井 大峰金鑛 金智泰

禮山郡插橋驛前 三和商會 崔圭鳳

禮山郡插橋面頭里 具昌祖

禮山釀造株式會社

金曜會

株式會社東一銀行禮山支店

禮山市場 綢緞布木紙物雜貨 金興國

驪州

插橋面水村里 金昌秀

禮山驛前 ⊙禮山運送株式會社

禮山郡邑內 實業家 成漢永

禮山驛前 禮山精米所

禮山驛前 鮮一商會

插橋驛前 萬成商會

插橋驛前 ⊙取引店 尹啓燮

插橋驛前 益源商店 任承宰

插橋驛前 插橋精米所

朝鮮日報社禮山支局長 朴相曒

古德面大川市 和成商會 主 姜完善

鳳山面馬橋里 林舜祚

禮山郡鳳山面大支里 申陽均

古德面大川市 松井駒藏

禮山郡廳 鄭雲成

禮山郡廳 韓昌熙

禮山郡廳 李弘魯

禮山郡廳 盧殷燮

禮山郡廳 朴永國

禮山郡廳 金柄權

禮山郡廳 朴炳善

禮山郡廳 石禱繁男

禮山郡廳 金東哲

禮山郡廳 林奭奎

禮山普通學校 池邊保

禮山邑內 松岡齒科醫院

禮山郡禮山里 成環鎬

禮山郡禮山里 沈宜韶

禮山東一銀行支店 徐廷翊

禮山東一銀行支店 朴雨龍

禮山郡禮山里 成春慶

禮山東一銀行支店 金斗麟

禮山東一銀行支店 李揆元

禮山釀造會社 李鍾惠

禮山釀造會社 安錫遠

插橋面頭里 金圭泰

禮山郡禮山面插橋里 米穀商 權泰鉄

稅務署禮山出張所 白重鉉

禮山驛前 成觀永

禮山里海東醫院 吳道泳

禮山里司法代書人 李範柱

禮山邑內 尹昌奎

插橋驛前 韓榮澤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金融組合 理事 李俊雨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郵便所長 崔憲源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金沙面長 李建奎

驪州郡金沙面梨浦里 警察官駐在所一同

驪州郡介軍面梨浦里 介軍面長 金基濟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酒造場 金榮鎭

驪州郡金沙面松峴里 漢藥業 金在誠

驪州郡金沙面梧子里 酒造場 李載鎬

驪州郡金沙面梨浦里 梨浦診療院 朴元植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金融組合職員 鄭昌植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金融組合職員 金炳朝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金融組合職員 徐載錫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金融組合職員 申在祜

驪州郡金沙面梨浦里 梨製商店主任 崔明源

驪州郡金沙面梨浦里 海東自轉車店 崔慶俊

驪州郡金沙面梨浦里 雜貨商 朴峻九

# 改正되는刑法과民法

## 次子도面目세우고 안해의相續을認定

### 名譽毁損罪에는申告를不待 司法省에서草案完成

【東京電話】 사법성에서는 소화이년이래로 형법과민법의 두법의개정을 계획하고 개정위원회에서는 매주일회 위원회를열고 두법의연구검토에 열중해오든중에 드듸여 금년신춘에는 그초안의완성을 보게되엿다고한다 현재시행되는 일본의두가지법칸은 구미선진국 그것의 중간제도와는 전연다른립장에서 각위원들의 개정과긔초에는 상당한고심을허비하야 탈고를 보게되엿으로 개정될형법중에 눈띄이는점으로서는

◇刑 法

一、處刑各論 처형각론을 일변하야부정기형(不定期刑)을 유도구금(誘導拘禁) 교정구금(矯正拘禁)등을하고 부정기형의 선용과함께 범죄예방에관한 강제처분(强制處分)、악벽교금(惡癖矯禁)에 관한 구금등을하야 철저적으로 악습관、악경우에의한 각종의 범죄를명료케하고 도한공동생활에대한 상호부조의 관념을 조장하는동시에모든 시설을하기에 류의하고특히 중간형무소(中間刑務所)등특설하기로되엿다

二、情狀參酌 정상을 참작하야 저상참작의 점에잇서서 형의집행유예에 판결유예의조항을 가하엿다 이것은형의 집행유예보다는 경하고 무죄보다는 중하다그러고 판결유예에서 아주죄를 청산하게되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특장을 가젓다

三、犯罪各論 범죄각론에서는 명예존중의 의미로명예훼손죄를 신고를 기다리지안코 사법권을 발동할수잇도록 개정하고 집행유예범위를 징역삼년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독직(公務員瀆職)을 특히 중하게한 것등이 중요한것인데이밧게 새법수십항이 렬거되어잇다

◇民 法

一、相續 상속에서는종래 안해의 권리는권연인정되지안코 일체의 권리는 장남에 옮기고안해는 무재산으로 되엿스나 재산분배에는 안해의 권리도 인정하야 장남은 가독(家督)을 상속함과 동시에 차남(次男) 상남(三男)에게도 체면을 유되할수잇도록 분배할 조항을가하엿다

二、家事紛爭 가사분쟁은 가사심판소(家事審判所)에이송하야 이가사심판소에비밀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취급하기로되엿다

三、私生兒 사생아의명사를 권연 삭제하고 계집아이의적출자(嫡出子)로서 출생한어린아이에게 칭호한 공기를주고잇든 사회상의결함을 제하고온건한 순풍미속 (純風美俗)을주점으로한 법의존재를명백히한 점등이다

## 不定期刑制 適用이問題

辯護士 辛泰嶽氏談

간단한 권문만가지고는 그내용을알수업스나 대체로보아 일대획시기적 개정이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러나 형법(刑法)에잇서서 부정기형(不定期刑)의 제도갓혼것도그립법(立法)정신은조호나그적용이또한문제로더욱이 범죄예방을위한강제처분가든것은잣칫하면만중에게의외의폐해를끼치게할 우려가잇겟다 그러고 판결유예의제도도 그적용여하에따라서는 편벽될 우려가업지안타 명예훼손죄에대하야 신고(申告)를 기다리지안코 사법권을 발동할수잇도록 고친다는것은늘대업는국가의간섭으로개선(改善)이라기보다확실히개악(改惡)이라고 할수잇다 그러고 민법에잇서서는 대체로 시세에따른진보로 법규로 당연한것으로볼수잇다

## 다섯名태운『택시』 一日曉南山서顚覆

일일새벽 다섯시반경에일출(日出)『택시』의 운전수김봉석(金鳳哲)은조선신사로참배를가는 일본사람 손님을 다섯명을태여가지고 남산으로 올라가다가그만조선신궁 압에서 전복되엿다 마침인명에는 별손해가 업섯다고한다

## 土窟에發火하야 人夫家族三名沒死

### 병어리의救助信號不通으로 梁山郡下의慘劇一齣

【梁山】 작년십이월이십칠일조선농림척식회사 량산제탄소(朝鮮農林拓殖會社梁山製炭所) 공장인부김응화(金應化)(三五)의집에서불이나서가족세사람이참혹하게도 물에다죽엇다 김응화와그의처 김씨(金氏)(三〇)외에그의처남 김화일(金化日)(四〇)의 세명이 그의집인 토굴에서고단이잠을 자고잇는바 돌연이화로에서 불이나서 토굴이화염으로변하고 마럿다 그들이잠을깰때는 이미때가 느저김응화는현장에서 다서죽고 김씨는집에서일정이나 뛰여나와 죽엇스며김화일는 불에다서 새감아케되여가지고 울산군상북면이천리 백련(蔚山郡上北面吏川里白蓮)이라는 등리까지 달여와서고함을첫스나그는 롱행이도 벙어리엿슴으로 그의동작만으로는 도저히무엇을 말하는것인지를 알수업섯슴으로 보는사람들은 구원조차못하고 그도또한 그자리에서죽고마랏다고한다

初荷

## 新義州不正商人取締

【新義州】 신의주서(新義州署)에서는 부정상인을 취체하기위하야 지난이십오일 오전팔시부터 오후오시까지 부내각처 열두곳에다 경관을 배치하고주문밧고 배달하러가는것마다 상품성질과 근량(斤量)을 조사하엿는데 근량부족한것이 십일건이라고한다

## 列車車掌室에서 二千五百圓盜難

### 廿七日載寧金山間서

【載寧】 조철황해선(朝鐵黃海線)에서지난 이십칠일 오전 다섯시사십분 사리원 (沙里院) 을향하야 수교(水橋)를떠난렬차가재령금산간(載寧金山間)을 진행하든중차장실(車掌室)에잇든돈약이천오백원 의 대금이업서젓다는데 그돈은 수교재령간(水橋載寧間)일곱정거장에서그 권일수입금(收入金)을조철해주출장소(朝鐵海州出張所)로 보내든것이라는바 범인은 아즉체포치못하엿다고한다

## 十一時間勞働에 賃金이廿三錢!

### 黑橋森農場精米部女工罷業

【黑橋】 황해도흑교(黃海道黑橋) 삼농장정미부(森農場精米部)에서는 지난가을부터 시작하얏는데 인부는 삼십여명이라며 건부가 십오세이상이십오세이하녀자로 아츰칠시에 시작하여 오후륙시에 맛치므로일일십일시간로동인데 임금은 물경이십삼전이라하며인부는드렷다 명령을한다데는십여일건에임금이너무적은관계상장래가심히주목된다고한다

## 强盜未遂코 露積에放火

【平壤】 소연한세모—성천군령천면 갈동리(成川郡靈泉面葛洞里) 박치주(朴致周)(六八)의 집에강도한명이 침입하여 취침중이든주안의 장남련관(璉觀)에게금품을내이라고 강박중 가족들이 떠드는바람에 그대로 망밧그로 뛰여나아와 동인의집뒤에 싸혀둔조(粟)로적에 방화하여 이백삼십석을 권소햇다 소관성천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나 아직체포치못햇다

## 今日의라듸오

一月三日 (水曜) (元始祭)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氣象通報

◇同 ○時三○分 뉴—스

◇同 ○時五○分 短歌拔萃

◇同 一時二○分 映畵이야기

◇同六時 童話

◇同六時二五分 新春講演(三)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皇太子殿下御誕生奉祝記念講演(第六日)

◇同八時 吹奏樂

◇同八時一○分 歌曲(男女唱)

同九時 俗謠

一月四日 (木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獨唱

◇同零時四○分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謠

◇同六時二五分 新春講演(四)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皇太子殿下御誕生奉祝記念講演(第七日)

◇同八時 音律

◇同八時三○分 伽倻琴과大笒 伽倻琴 李日善 大笒 金泰業 長鼓 林明月

## 甲年을 파는무리

## 慘禍를前提한後 荒唐한逃避法暗示

### 뭇내鄭氏의都邑을無疑主張

### 所謂鄭鑑錄의正體解剖 (三)

**몸을保存하려면 十勝之地잇다고**

다음으로 정감이 또말하되어느해에이르러서는 지각이 잇는자는살고 지각이업는자는 죽으리라하매 리심이 그것이어느때냐고물은즉 정감이 다시가로되 그대의 자손말년에 궁중에과부가——이하는 무슨소리인지 알수업스며—— 이어말하되 계룡산에 돌(石)이희여지고청포(淸浦)에대(竹)가희여지고풋개(草浦)에 조수가생기여배가다니고 누른 안개(黃霧)와 검은구름이 사흘을 뒤덥히고 혜성(彗星)이 진두(珍頭)로나아가고하늘에 자미(紫微)를범하야북두(北斗)를돌아서 남두(南斗)에 이르러 업서질터이니그리되면대소중화(大小中華)가 모도망한다 하얏고다음으로리심이말하되신(申)년봄 삼월과 성세(聖歲)가을팔월에 인부(仁富)의 사이—이것을 속담에는 인천부평 (仁川富平) 이라한다—에는밤에 천수(腹)를대이고안죽(安竹)의사이—이것을 속담에는안성죽산(安城竹山)이라한다—에 사람죽은시체가 산가티싸이고 려광(驪廣)의 사이—속담에 려주(驪州)와광주(廣州)의 사이라고한다—에 사람의 그림자가 길이끈치고수당(水唐)의사이—속담에 수원(水原)과 당진(唐津)이라고한다—에 피가흘러 내가되며 한양남쪽백리에 사람의그림자가 끈치리라 정감이말하기를 그러면그노릇을엇지하면조켓느냐고말하매리심이다시가로되몸을보존하려면 십승지지(十勝之地)가잇스니 첫재는풍기(豐基) 예천(醴泉)이오 둘재는 안동화곡(安東華谷)이며 셋재는개령(開寧)룡궁(龍宮)이며 넷재는가야(伽倻)이며 다섯재는단양(丹陽)영춘(永春)이며 여섯재는 공주정산(公州定山)과마곡(麻谷)이며 일곱재는 진천(鎭川)목천(木川)이며 여덜재는 봉화(奉化)이고 아홉재는 운봉(雲峯)두류산(頭流山)이니 이들승지야말로 길이살만한곳으로 어진재승과 조흔장수가계계승승할것이며 열재는 태백(太白)산속이라고하얏다

**避身을하려면 弓弓이또조라고**

다음으로 리심이말하기를계룡산아래 개국(開國)을 하면 변씨(卞氏)는정승이되고배(裵)씨는 장수가되여 개국의원훈은 방(房)씨와 우(牛)씨가수족과가치되며 태백과소백산 사이에는 예양반이 회복될것이니 다음사람이 종지각잇는자는 자손을태백과소백사이에 무더두어야 하리라하매 정감이가로되 무릇사람이세상에서피신함에 산(山)에잇서도리롭지못하고물(水)에잇서도리롭지못하며 량궁(兩弓)이가장조호니 그대의 자손은국조(國祚)가팔임(八壬)에다하야!! 개국한이래 여덜재임(壬)년이라고볼것이니 즉시백팔십년이다——박씨(朴氏)의손에어지워가지고내자손——정감의자손—에이르러마치리라고」 하엿다

## 大學專門驛傳競走

### 朝鮮學生六名參加

【東京】 一月六•七日 舉行하는報知新聞主催 第十五回 大學 專門學校 驛傳競走에는內地에留學하는 朝鮮學生이各大學代表로 六名이出場케되엿는데그氏名은아래와갓다

▲金恩培 趙寅相(早大)

▲李龜河 金鍾宇(專大)

▲鄭商熙(明大)

▲尹德鉉(法大)

## 講武館新道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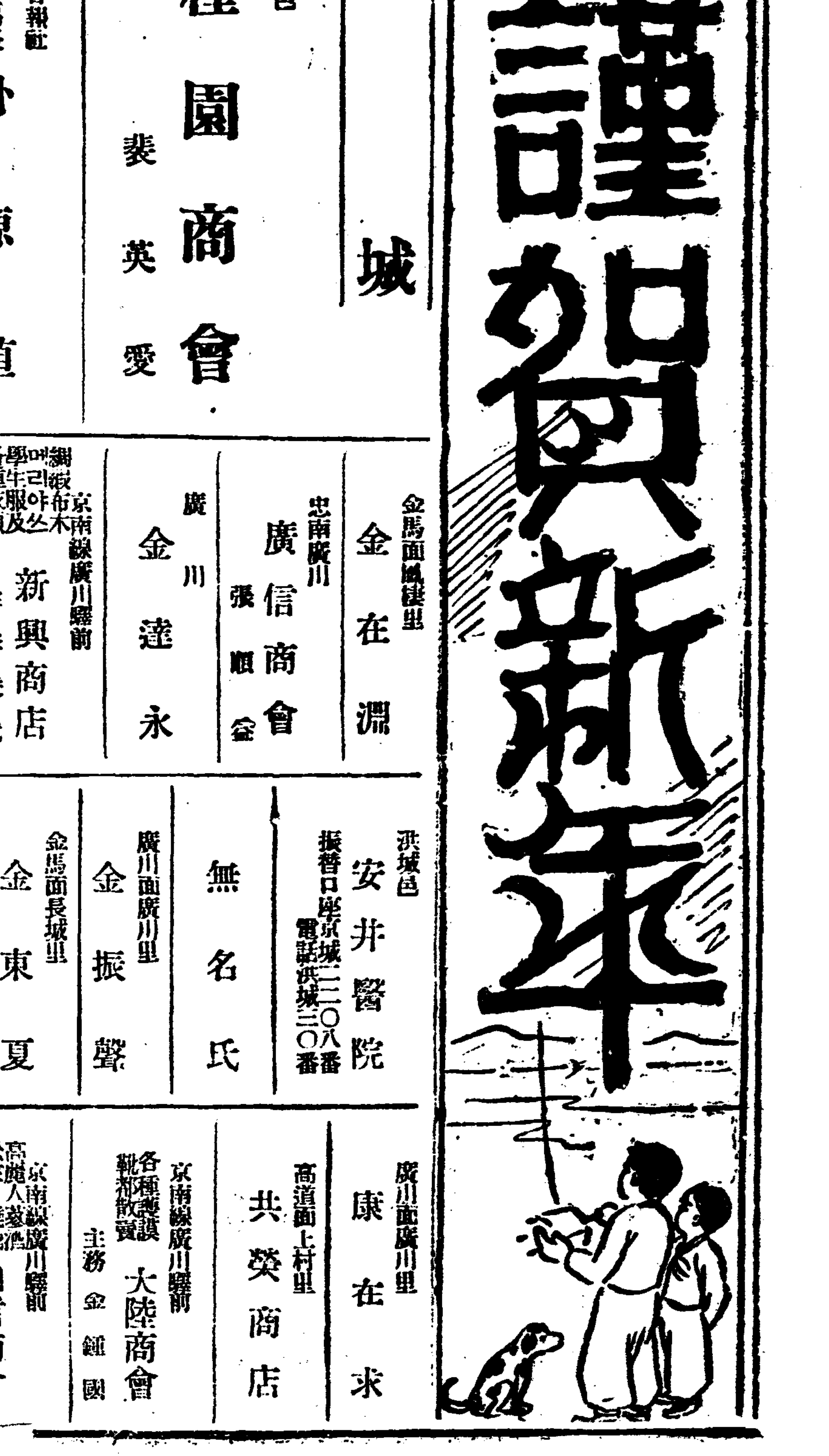
### 今月中旬移舘

千辛萬苦드듸여 新道場의落成을보게된 講武舘은 今月中旬新築道場으로 移舍케되여新春부터는 새로운活氣를 띄우게되엿다 同舘에서는 例年에依하야 一月三日까지는 休舘케되엿스며 來四日부터每夜七時樂園洞道場에서 開講케되엿다는데 五日밤七時부터는 緊急舘員會를開한다고한다

## 普專籠球團 上海遠征記 【5】

上海에서 金永述

【後半】 開始하자敵의猛襲으로安君의自由投成功하야 15—15同點 二分宋君의右翼側으로서 突入得點하야 17—15로오랫만에다시 리—드 同窓들의歡呼聲이堂內를振動하엿습니다 四分에敵의得點로17—17으로同點 五分에다시 廉卅君의中投成功으로19—17로리—드하엿스나其後約十二分까지 우리形勢다시 萎縮케되여 敵에게連 접히를을빼앗기게되야 28—20이라는큰差異로 리—드를當하고잇게되엿습니다 이때에一般은勿論이어니와 내自身부터도多小蕭望에빗치엇섯든것이아니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무엇보다도 처음부터精神的으로 무슨決心을가젓스니간치 라스트까지死力을다하야 對抗하갓습니다 그리하야 처음은果然血戰을일우윗습니다 그러나點數差는큰變動이업시 압호로二分밧게아니남겨놋코 七點差로나려온同時에 雪上加霜으로孫君이 오잇트를當하게되엿습니다 이러한때에 잇서다만끗까지싸와 우리의勇氣와精神을 남겨노라는수밧게는업섯습니다 孫君代理로이쨈에 全責任을지고金嶽岳君이드러갓습니다 드러가자마자金嶽岳君의好投成功으로 우리의士氣는 갑작이振作되야 이예쨈洲君의 또得點로時間은—分밧게 아니남겨놋코 불두개差까지追及하갓습니다 우리同窓들의喜樂은 非常하얏습니다 約十九分半에 LeGo金化永君의右翼突이 後援에不及하야 아웃될려는것을 嶽岳君이 엔•드라인中間밧그로부터 조차드러오면서 바터 巧妙히쨈프숏이成功되자 場內는뒤끌듯이 拍手歡呼聲이 끗치지를아니하엿습니다


洪城

朝鮮忠南洪城邑 內外果實 海陸產物 食料雜貨 都散賣 權園商會 裵英愛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洪城支局長 朴源植 同 支局員一同

忠南保寧 鶴城金山 事務所 保寧郡川北面鶴城里 出張所 洪城郡廣川面廣川里

洪城邑 濟衆醫院 院長醫學士 張東赫 電話二一番

忠南 結城金山

廣川面淡山里 黃寶鑛山

龜項面廣溫里 金瀅魯

忠南洪城驛前 八滿社 電話六四番

龜項面踏峙里 面協議員 片光宇

西部面板橋里 面協議員 林承朝

西部面梨湖里 面協議員 朴魯三

西部面梨湖里 上田實二

洪城郡洪州面五官里 眞舘鐵六

洪城邑 忠南鑛業取締所 洪城支所職員一同

龜項面支井里 金鎬冕

長谷面道山里 本田正道

洪城邑 小林雄平

洪城邑 金成營業局 金致成

廣川面廣川里 廣昌商店 姜允明

洪城邑 司法代書人 面協議員 崔泰鎭

洪城邑 十五日會

洪城邑 桃源釀造所 東山義諦

忠南廣川 世一商店 金世煥

廣川面瓮岩里 安鍾俊

忠南廣川 面協議員 柳東秀

忠南廣川 李康範

忠南廣川 天一商會 金容八

洪城邑 河載旭

金馬面鳳棲里 金在淵

忠南廣川 廣信商會 張順金

廣川 金達永

京南線廣川驛前 綢緞 布木 메리야쓰及 學生服 各種衣類 新興商店 主 李秉軾

洪東面大英里 面協議員 李定世

洪東面金堂里 起昌釀造場 李起五

洪東面雲月里 松風釀造場 朴泰學

洪東面孝鶴里 李來憲

銀河面大栗里 金龜漢

銀河面大栗里 學校評議員 田範鎭

銀河面大川里 銀河釀造場 金敎祥

銀河面大川里 面協議員 金敎文

銀河面 面長 金炳興 外職員一同

銀河面鶴山里 面協議員 鄭龍海

結城面 面長 鄭行直 外職員一同

洪城邑 金鎬鼎

洪城驛前 洪城麵子組合 電話五五番

洪城邑 池田喜代登

洪城邑 株式會社 東一銀行 洪城支店

龜項面 面長 韓永完 外職員一同

銀河面大栗里 田英鎭

西部面板橋里 暘谷金山 成文慶

西部面 面長 成元燮

結城面星湖里 金炯翊

洪城邑 安井醫院 振替口座京城三二○八番 電話洪城三○番

無名氏

廣川面廣川里 金振聲

金馬面長城里 金東夏

高道面上村里 忠南消費會議員 金炳鴻

舒川邑 羅錫周

洪城邑 朴敦圭

洪城驛前 洪城農業倉庫長 河波寮造

洪城邑 湖西釀造合名會社

洪城邑 兪昇濬

洪城驛前 穀物貿易 李基永商店 電話四六番

結城郵便所

西部面廣里 李桓珪

廣川面瓮岩里 金商定

廣川面廣川里 吳綺煥

廣川里 東一銀行員 金正秀

洪城郡廳 李鍾斗

洪城郡廳 張基海

洪城郡廳(雇中欠禮) 丁來鎭

洪城郡廳 柴田雄三郎

洪城郡廳 李澤魯

洪城郡廳 財務主任 野田謙吉

洪城郡廳 趙成大

洪城邑 金厦鎭

廣川面瓮岩里 鄭安植

廣川面廣川里 全亨植

廣川面湘井里 吳敬燮

廣川面廣川里 康在求

高道面上村里 共榮商店

京南線廣川驛前 各種書籍 紙筆墨 散賣 大陸商會 主務 金鍾國

京南線廣川驛前 高麗人蔘 松來燒酒 高級고무靴 明信商會 李永培

洪城郡廣川面湘井里 兪炳龍

洪城邑 李柱珩

洪城郡結城 忠一精米所 金正昭

銀河公立普通學校 訓導 李大性

銀河面長谷里 尹弘植

銀河面大栗里 田慶德

洪東面新基里 面協議員 趙禹植

洪城邑 牧師 宋得烰

洪城邑 쌈거—마상會社 洪城分店主任 金顯大

忠南廣川 洋布 雜品 廣一商店

舒川邑 舒川官公署 團體一同

載寧

載寧郡北栗面新湖里 金正洪

載寧面內宗市 布木商 朴基洙

載寧郡北栗面 協議員 魯達淳

載寧郡載寧面武尙里 精米 經紀 貿易商 趙昌玉

北栗面東拓會社 指導員 許亮元 同 安仁洛

北栗面 西湖學校長 任基浩

# 松禾泉洞面國有地 貸付問題로 軋轢

## 緣故者의 出願을 度外視하고 面有地化하려하야 面民蹶起

【黃州記者團發信】 자작농창정(自作農創定)을부르진는최근 지방에잇는 일게면당국 으로서 수십년래로 연고자들이든 면민 들부들이무지 하여자긔네 연고 권리를영구히 확보치못 하고성 명삼자도 듯지못한 타지방인사 에게로 도라간후에야 비로서연 고는잇스면서도 자긔네의 무지 탓으로국유미간지(國有未墾地) 로편입된것을 깨다럿스나 엇지 하지못하고 그미간지를 대부맛 든자의 소작인(小作人) 이되여 오다가 대부긔간내에 개간성적 이불량하다는 명목으로 그만대 부취조를 당하게되자 그소문을 들은원내연고자(元來的緣故者)들 은자긔네에게로 대부를 엇으저 면행정당국(面行政當局)에 대부허 가원(貸付許可願)의 수속을의 뢰하얏든바 면당국에서는 이와정반대로 면유(面有)로 맨 들고저 연고자들인 주민들의요 구는 듯지안코 면(面)에서즉접 대부허가원을 제출한일이 잇다 하여 최근여론(與論)이 비등하 여젓다는데 조사한바에 의하면 황해도 송화군천동면신촌리(黃海道松禾郡泉洞面新村里)국유 임야미간지(國有林野未墾地)총 면적사십정사반오묘(四十町四反五畝)의대부경원(貸付願) 문제로 소화팔년 하절 에 조선총독부에서와 황해도당 국자들이 실지조사차로 출장하 여숩내 대부경원자의하나인재령 대부를맛든 면재재너대거주하 는김모(金某)를맛들고 본방출장 한조사원들에게자긔네가권리로 확실한연고자인것을 상세히설명 하려는등 일시는 그지방남녀로 소가 총동원하여 아우성을치며 대소동을 니르켯스며 자동차를 몰아 도라가는 조사원을못가게 로상에들어누어서 애원하든 군 중들과 김모를구타하는등 일대 살풍경을연출한 문제의 대부정 지를 천동면(泉洞面)당국에서 대부를 어드려는 원인은동면에 경비가 부족함으로 그것을대부 맏어드면 소작료만 밧어도 경비의보충(經費補充)이되겟고 또는신촌리주민(新村里住民) 이대부를어드면조켓스 나타지방 인사에게로 대부될까 하여차라리 면으로 대부되여그 동리주민을 영구소작인으로 하 여주는것이조켓다는주견으로그 와가티대부원을제출한것이라하 며 주민들로서는 그땅을키부개 간하여 지금에는 옥토(沃土)로 맨든것이 커부자긔들의 힘이오 또선조때부터 유사되여 오든것 이니 놈의소작인이 되지안코자 긔네가 확실한 연고자인이상 지방에잇는 개인에게는물론 면 당국의 소유가되여 소작인이되 다는것은 당연치안을뿐아니라 자긔네 즉접사활문제이니 만치 죽드래도 자긔네가 대부바더것 다는 결심으로 대부허가를제출 한것이고 재령의김모는 긔위그 국유지를 대부하엿다가 목적을 달성치하고마것인즉 다시 대부 를어더보려는목적으로대부원을 제출하얏슴으로 일반이 주목하 는중이라한다

# 豊川記者團定總

【豊川】 황해도풍천긔자단(豊川記者團) 에서는제일회정긔총 회를금월일일 오전십일시에 단 사무소(開東新所)(朝鮮日報豊川支局新所內) 내에서열기 로결정하엿다한다

# 賭博에 돈일코 虛僞强盜告發

【慶山】 경북경산군하양면금 낙동황재걸(慶山郡河陽面錦洛洞黃在杰)은 본월이십 륙일오후 륙시경에 동군자인면 옥천동도로변에서 이명의강도 에게 대금을강탈 당하얏다고당 지경찰서에 고발함으로 일시세 인의 이목을놀내이게 되엿든바 당서사법게에서는 사태가 중대 함을늣기고 즉시현장 검사를한 결과 허위강도고발로 판명되엿 다한다 권긔황씨는 열설되는 해에멀니 만주에가서 십유여년 동안생활하는중 저축하엿든 금 일백륙십원을 가지고 자긔형의 절혼비로 사용코저 본월일일오 래만에 녯날의저든 고토를밟게 되여 하양으로오든중 달성군 해안면 인동촌에 이르러야바 우군에게 가지엇든 돈커부는일 케되야 그는사실을 은폐코저본 월이십륙일부터 자인면 원당동 자긔처가에 단니러간다고 칭탁 을하고나와서 권긔와가티 허위 고발을 한것이라고한다

# 檀君陵守護閣 建築誠金還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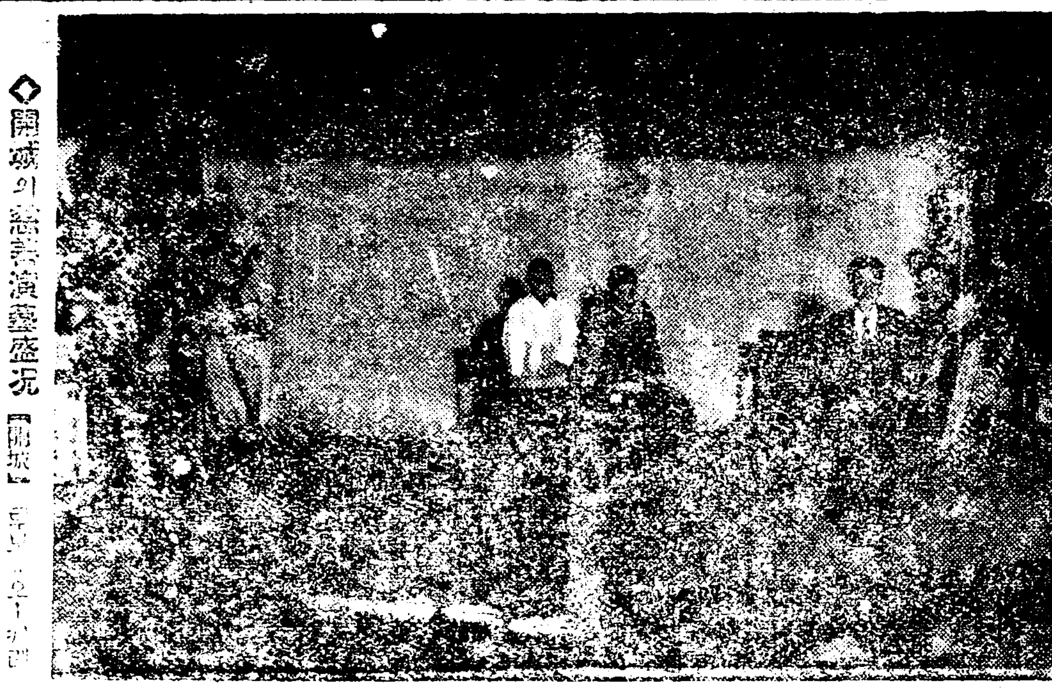
【江東】 평남강동군에잇는단 군릉수호각건축성금이 나날히 늘어가는데 의연한사람은 다음 갓다고한다

▲拾五圓金振龍 ▲貳圓式金重鎬 白斗庚 張鶴燮▲壹圓式李萬一 李謙一▲參圓李丙燮 ▲貳圓式李命煥 李益善 ▲壹圓式鄭時默 李命烈 李斗赫 李國炫 李升一 ▲參圓表光濤 ▲壹圓式表寬輔 表院萬 ▲三圓式張洙 文鳳祿 ▲二圓金瀅根 ▲三圓孫會中 ▲二圓式 三登消費組合 張寅宙 邊利善 三登農民社 ▲一圓式李元一 ▲五圓金贊志 李致默 ▲一圓式申任瀅 申鳳杰 李由麟杰 ▲三圓申基淳 ▲五圓申命鳳 申命和 ▲一圓式申駿杰 申範 申基瑩 ▲五圓李斗南 ▲三圓式孫昌範 ▲二圓式金益祚 林志炫 ▲昇瀬 ▲一圓式白孝謙 張基瑩 李 ▲二圓式金應鎬 鄭明雲 尹錫昌 ▲二圓 太郞 趙允煥 秋川嘉 朱炫文 ▲五圓增田傳六▲一圓式 承結 金丙麟 金消亭 韓 ▲二圓吉川壽廣 今月 計一百十六圓 累計五百六十 一圓五十錢

# 益山不二農場 耕地賃問題段落?

## 一月中支出을山崎主任言明

【益山】 오래동안분쟁중에잇 든 익산불이농장(益山不二農場)소작인들 은 그동안탄원서를 제출하고 농장 의해결책만 손곱아 기대하든 중 아무런효과업시 시일만흘러 가자 사선에서헤매고잇든바 지 난이십오일에 소작인측에서고 (金貸)오인선(吳仁善)외메사람 이산긔(山崎)농장주임을방문코 고 소화사년도경지정리비(수 원)자출을요구하얏더니 그대 동농장에서 ... 인울식혀 경지를 정리식히는 동시에 그비용 ... 후에 지 출하기로 약속하여다 ... 가울은 자작고 봄이와도어 타하는 동지가업슴에 소작인들 은 그비용을요구하얏는바 ... 가 되엿타는등 조금이아왓 다는등 이럭저럭 오개년이지나 도록 우매한농민들은 농장의처 사만 기다릴따름이엿섯다 그러 나 금년에는더참을수업시 권긔 파가치 최후의담판을 하엿든바 장산긔주임은일월중주입회의 후에 지출하겟다고 언명하 엿다고한다



◇開城의 慈善演藝盛況 【開城】 코-드주최 본사개성지국 후원의세민자선연예대회 (慈善演藝大會)는 지난삼십일과 삼십일일량일간 부내개성좌 (開城座)에서 개최되엿섯는데 일긔가갑작이 치위 저습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물밀듯몰려들어 량일다대성황을일우엇다 한다

# 公金橫領逃走한 晉州穀組員押來

## ◇사랑의꿈도幻滅.

【晉州】 진주읍 곡물조합(시 ...) 김찬태(金讚泰)(二三)는 작년 이월십삼일 동조합 금륙천륙 백삼십원을 가지고 어데로인지 도망하엿든바 동삼십일 오후두 시에 만주(滿洲)로부터 진주서 에 압송하야왓다 김찬태는륙천 여원의거액을 품에너코 당지의 명긔 강월선(姜月善)과함께 만 주로원주하얏다 그리하야 그곳 에서 사랑의보금자리를 구미려 고하엿스나 진주경찰서의 수배 에 의한만주경찰의 맹활동으로 그만달콤한꿈은 헛되히 깨여지 고마랏다고한다

# 本報讀者優待

【豊川】 황해도풍천 긔화사진관(奇化寫眞館)에서는 오는오일부터십오일 까지 십일일간 본보독자에게한 하여 원가(元價)에서 사할인을 하기로 결정되엿는데 일반독자 는이긔회를 리용하여주기를 바 란다고한다

# 豊川靑年會 定期總會召集

【豊川】 황해도 풍천청년회 에서는 제일회정긔총회를 령시 삼십분부터 당지 공립보통학교 낙부강당에서 열게되엿는데 회 원은물론 사회인사의 만흔출석 이잇기를바란다고한다

# 鎭東、鎭北兩面合同 實現運動具體化

## 期成會組織코陳情

【馬山】 경남창원군진동、진 북(昌原郡鎭東、鎭北)량면은 두 면을합해、 진호수 불과이천오 백호밧게 되지안으며 그거리도 십여정에 불과한데다가 면행정 사무소인 면소가이 두곳에잇게 되야 진동면일년경비 달천삼백 원과 진북면경비 구천여원가해 서 근이만원의 면민부담만과중 케됨으로 오래전부터 량면당국 자들비롯하야 면내유지간에 량 면폐합문제(廢合問題)가현안이 되야오든바 지난 이십삼일에진 북공회당(鎭北公會堂)에서면내 유지 륙십여명이회합하야 량면 폐합실현긔성회(兩面期成會)를 조직하고 진정위원을 선거하 야돌일간 경남도당국에 진서 케하지 되얏다는바 실현긔성 위원은다음과갓다

金英培、金致容、金一煥、燃濂翰、文龍爽、李起範、洪象詰、石鍾大、許正德、畑田五郞

도당국진정위원으로서는

金英培、金致容、李起範、武象喆、畑田五郞、佐藤佐賓美

懸賞當選小說

# 暴風雨지난後 【三】

李巴村 作 熊超 畵

밤이깁허서야 평양서 의사 를태운 자동차가 와다앗다 하고 부드럽게생긴얼골 타 원형의안정을 코스등에건것 호 리호리하게된키 어느점으로보 든지 첫인상은 의사로밧게보 이지안엇다

의학박사 강상수다

아메리카에서 공부하엿고 자 기가경영하는 평양의원의 원 장으로잇다

강박사는 ... 진기를대보드니

「어대요?」

하고 물어보는말은 드른척만 척 간호부를시켜서 가방을들 게하고 시침이를 딱 떼면서 일어나버렷다

박사란으레히 저러케하는가 하고 생각하는사람도잇섯다

「잠깐 나오세요」

박사는 정순을향하야 말하엿 다

강박사는 마루에나와서 가 장침통한어조로

「한시간을 넘기지못할것가틈 니다。어째피 오랄이니 주 사라도 한대노코갈 생각도 잇지만 그랫대야 소용도업 슬것이고 또 댁에서 공연 히 비용되릴필요도업스닛까 요 대단 황송한말슴갓지만 ー또 주사를노호면 고 생만하게되니까요」

하고 가장정직하고 사정을 알 어주는것처럼 말하엿다

「선생님은 몸으실려지못라도 저는 선생님의 명성을 잘 듯고잇지요 서음 움아게에 뚜렷이나타나잇는 선생의명 성을ー」

강박사는 갑작이 벼이야기는 딴데로빠저나가고 회제를 돌 리면서 정순을 처다보앗다。

「천만에요 제가무슨ー」

하면서 정순은 겸손을보이고 지금이 그런 한가한 담화를 할시간이 못된다는듯이 방문 을열고 드려가려고햇다。

정순은 강박사의 하는말이 구미가 당기지안는것은 아니 엿다。자기를놉혀주며 인사하 는말이 오히려 영광스러운것 도 갓햇다。그러나 여려사람 의 시선을보던지 또는 자기 자신의 처리를생히던지 지금 은 그런 한가한소리로 이야 기를주고 밧을때가 안인것을 알엇다。

별안간 방안에서 민창로의 신음하는소리와 함께

「어니!」

하고 몰으는 저에의 소리가 들여왓다。

「자ー 모든것이 운명이닛가 과히슬퍼마시고!」

하면서 강박사는 가버렷다、

정순은 가버리는 강박사에 게 려럼을이르켜시간도업시방 으로 뛰여들어왓다。

정순이가들이와서 경혜안자 민창로는 손을 내저으려다가 힘에지처못하고 무슨말을하려 고애를쓴다。그러나 말하려든 기운은 석은페장을흔들고 바 서진목구멍에올라왓다가는 걸 국기침이되여 터질뿐이다。

「쿨럭!」

한업시쏘엿든 가레침이 한거 번에어되로인지 빠저나가는소 리가나자 민창로의눈은 푸시 시감겨버렷다。그것은 민창로 의 최후의음향이고 최후의동 작이엿다。

「아이구 저에야 엇더커니 ?」

「어니! 엇더커우?」

정순과 저애는 서로붓들고 울엇다。여려교인들도 딸어울 엇다。곡성은 캄캄한 밤하늘 을흔들며 퍼저나갓다。

민창로얼골에는 하얀보재기 가씨우고 코와입에는하얀 솜 쪽각이 드리막혓다。」

釜山 香椎源太郞

朝鮮紡織株式會社

朝鮮瓦斯電氣株式會社

釜山銀行集會所

釜山府廳

慶南道廳食堂

釜山府佐川町 日榮고무工場 長電話二三九六番 振替二二七七番

釜山府水晶町一三三二 內科小兒科 産婦人科 海山醫院 院長 李晃載

釜山府草梁町 朝鮮料理 朝鮮館 電話一七四八番

釜山府佐川町 大和고무合資會社 電話一八九六番 振替釜山一八六番 振替京城五四二四番

釜山府草梁町 協同印刷合資會社 長電話六八九番

釜山府草梁町 南鮮倉庫株式會社 電話三〇三番

釜山府榮町三丁目 泰興洋服店 金泰熙 電話一八〇八番 振替釜山三三六二番

釜山 水産株式會社

釜山府大倉町三丁目 合名會社 金宗海商店 電話一四五六番 振替釜山二六一〇番

釜山府凡一町 丸大고무株式會社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慶尙南道支部

釜山蓬萊券番 副取締 具琴湖月

釜山府瀛州町 蓬萊券番一同 電話二四一三番

釜山府瀛州町五八〇 藝妓 劉小春

釜山府瀛州町六八四 藝妓 金暎月

釜山府大廳町 米穀取引所仲介店 鄭箕斗

釜山米穀取引所

釜山海運業組合

釜山府寶水町一丁目 興信製麵製油所 朴永周 販賣部 電話一八四五番 日韓市場通

釜山府草梁町入口 慶南サーヴイス 白永植 電話二七四七番

釜山 迫間本店

釜山府草梁町 耳鼻咽喉科 專門 永濟醫院 李貴興 電話二六三一番

釜山府大倉町 海龍社看板店

釜山鎭入口 喜聲商會고무工場 長電話二四二七番 振替釜山七四九番

釜山 牧島朝鮮酒造業者一同

釜山府瀛州町 外科皮膚科 專門 李瑾鎔醫院 電話九四五番

釜山 西部朝鮮酒造業者一同

梁山自動車組合 釜山驛前營業所 電話二五七 四四一番

釜山府瀛州町 辯護士 李祖遠 電話九二七番

釜山府谷町 梁三德

釜山府辨天町二丁目 洋服商 伊藤莊重 電話三六三番

釜山府大倉町 梁卿煥 電話六六八番

釜山府一丁目 株式會社 立石商店

釜山府瀛州町 朴學述酒造場 電話一五六九番

釜山府大倉町四丁目 金聖浩商店 電話四五一番

釜山府大倉町 株式會社 澤山商會 代表電話長四〇〇八番

釜山府大新町 共和醫院 林時圭 電話二五〇九番

釜山府本町三丁目 金雄鎭商店 電話二〇三七番

釜山瀛州町 書籍文具 天命堂 電話二三七一番

釜山府本町四丁目 合資會社 永信靴鞄店 電話一八〇二番 振替釜山四二九九番

釜山府大新町 東春堂乾材藥房 申學均 電話二六二二番

釜山府寶水町 マルワイ洋服店 金元斗

釜山府中島町一丁目 喪中缺禮 韓命虎 電話二〇七四番

釜山府草梁町(支那街) 粧品各種 南榮商店 主 南榮出

釜山府草梁町 大同藥房

釜山府草梁町入口 一般齒科×光線科 金昌齒科醫院 電話七六一番

釜山府草梁町 十字堂ラヂオ部 電話二六八番

釜山府佐川町(電車通) 朝日樂器店 電話六一五番

釜山府牧島 辛壽甲商店 電話牧島一七五番

釜山府瀛州町 質屋 金善五

萬年筆專門商 金志彦

釜山蓬萊券番 藝妓 崔貞淑

釜山佐川町 高麗鍮器鑄物工場

釜山府榮町二丁目一〇 金善養

釜山府瀛州町入口 五福堂乾材藥房 林琫圭 電話二四六一番

釜山府草梁町五九六 丸成洋服店

釜山草梁町(支那街) 綢緞布木 鄭仁五商店 (商業券發行) 電話二〇一二番

釜山蓬萊券番 藝妓 朴雪香

釜山蓬萊券番 藝妓 朴金玉

釜山蓬萊券番 券番長 吳聖郁

釜山蓬萊券番 藝妓 林月仙

釜山草梁町 金炫圭

釜山府瀛州町入口 玉蒲乾材藥房 崔翔甲

釜山府寶水町 各種製油肥料原料 東洋製油所 電話二〇一七番 振替釜山四四三三番

鷺梁津

鷺梁津驛 太吉浩

市外鷺梁津 唯一醫院 金永智

市外鷺梁津 時計眼鏡 蓄音器 印章彫刻 販賣修理 惜寸堂時計店 韓相錄

市外鷺梁津 綢緞布木百貨都散賣 馬相文商店 電話一三九二番

鷺梁津 廣昌商會

# 謹賀新年

中野米國理學士 責任指導

# 儲かる新職業

二十圓の資本から誰にでも出來る

月二百圓の利益確信

(前略)私は二十余年間官界に勤めて居りましたが、昨年引退と同時に先生の門下に入り、粉末石鹸製造の教授を受けました。現在では月三百箱は製造出來る様になり、好評を博して居ります。品質優秀は萬人に認められ、今後は月二百圓位の利益をあげ得らるゝ確信が出來、喜んで居ります(大阪消司)

辻本元巡査部長の成績

中野先生に暫らく御無沙汰致しましたが、私事本年六月から石鹸製造業開始しましたが、製造品質優良の故を以て到る處好評を博し、注文取りに廻るのに殆ど出た事がありません。注文が夫れでも受けける丈け製造するのに追はれて居ります。此の調子で行けば前途益々有望です。一寸近況御報告申上げます。

小資本新職業としての粉末石鹸の製造

粉末石鹸は無限の需要と莫大なる販路を有し、將來益々有望である。都會地方を問はず誰にでも簡單に出來、大いに儲かる小工場的にやらば月二三百圓の利益を得られる最も新らしい職業である。外數種の中から理學士研究の最も新しい製法を獨特の教授法に依り、通信教授は一週間、實地教授は三日間で速成教授をなし、永久指導後援す。

好期は今!! 詳細説明書進呈 實験原料無料進呈の大特典あり

中央化學工業研究所 名古屋市東區西裏町一ノ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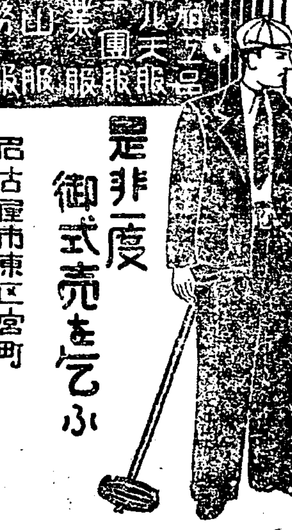
ヘ印発売元 アロバ・百貨 販賣問屋

カタログ呈上

名古屋市中区新宮町四丁目 永田商店營業部 電話西局四六二六番 振替名古屋一七二七九番 私書函笹島一五番

---

綿布類品 子供ル天服 青年團服 作業服 登山服 事務服 通学服 各種之服 小児服 防水雨具



是非一度御試売を乞ふ

名古屋市東区宮町 合名會社 荒木商店 電話本局 二三〇四番 七八八六番 振替名古屋 一五〇六番

---

シヤチハタ印 萬年インキ台

始めからインキをヌラズ数年使へる、經濟便利、御買上の節はシヤチハタ印と御指定下さい

○色、赤、黒、紫、朱、緑

○容器、大、中、小三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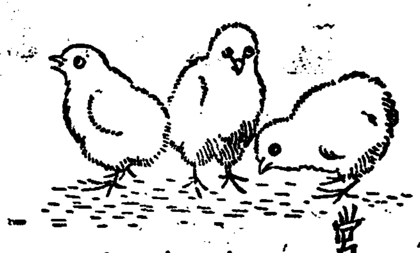
○定價参拾五銭ヨリ九拾五銭迄あり

發賣元 舟橋商會

---

國家興隆の養鶏事業

農村の振興は肥料の自給自足にて! 肥料の自給自足は養鶏が最適?



營業種目 初生雛 中雛 種雛 生産育成並養鶏 用品器具一切販賣

養鶏案内書無代進呈

名古屋市中区広路町 服部養鶏園 電話東四三七七番

---

(商報進呈)

製造發賣元 Superior メリヤ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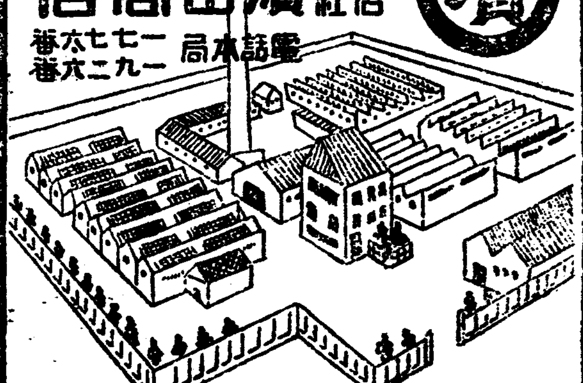
現金問屋

名古屋市中区八百屋町一 サ 前田貞治商店 電話本局二三三二番 振替名古屋八三二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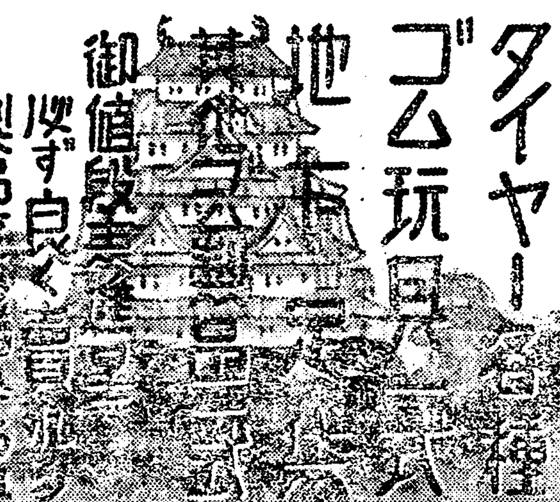
---

本邦唯一の毛織物本場

名古屋市下長者町 合名會社 濱田商店 電話本局一七七六番 一九二六番



---



各種ゴム 新製品

ゴム防水布 雨具

タイヤー 各種

ゴム玩具 [illegible]

地下足袋 [illegible]

御値段は[illegible]

必ず良く[illegible]

製品至[illegible]

名古屋市東区[illegible] 合名會社 金城ゴム合名會社 電話[illegible]番 振替名古屋[illegible]六番

---

機械商

合名會社 フシノ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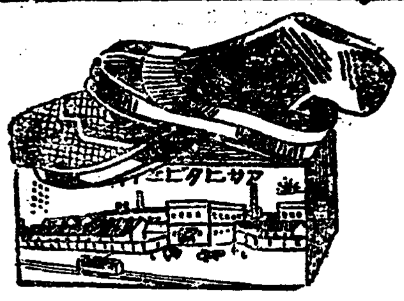
名古屋市中区東門前町二丁目

---

アサヒタビ工業所の年始大奉仕特賣

一萬足限り 一月一日ヨリ十五日マデ

本紙切取注文者ニ限り 百足入木箱一個 指付先丸型同値 文数御指定ノ通り應ず



時價六十五円ノ處 奉仕特價百足金四拾九圓 運賃・賣主負担ノコト

絹製宣傳大旗進呈

名古屋市東区千種町今池 アサヒタビ工業所 電話東四八二九番

---

メリヤス専門卸問屋

名古屋市中区南大津町 合名會社 田組與商店 電話東局一〇七二番 振替名古屋一七七番

---

専門問屋

手袋 靴下

大量製産 商店に限りカタログ呈上

S 製造直売 専門問屋

名古屋市東区蒲焼町四丁目 佐藤鉦商店 電話東三八二八番 振替名古屋一五〇〇九番

---

謹賀新年

全日本三百萬鶏友各位と共に鶏界飛躍の成年を迎へました事を祝福致します

春雛の御用命は全郡種鶏二百卵級を目標に改良されたる我が玉置人工孵化場へ御指定願ひ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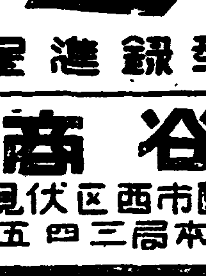
カタログ 育雛参考書 無代贈呈

本場 名古屋市中区広路町一ノ八 玉置人工孵化場 電話東六〇九二番 振替名古屋六二二五番

種鶏場 孵化分場 愛知縣東春日井郡味岡村 電話小牧一四六番 振替名古屋一七五一九番

---

蓄音器 樂器 卸問屋



型録進呈

菊谷商店 名古屋市西区伏見町三 電話本局三四五四番

---

# 恭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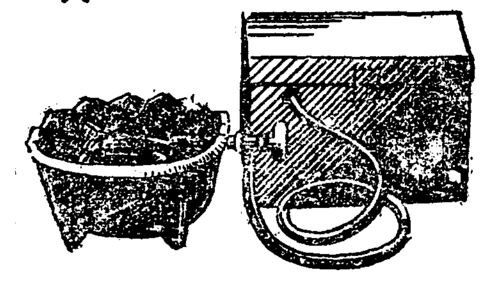
改良と研究に専心し販路の拡張に努力し其の一歩を満洲に印するは各位の御後援と深く感謝仕候

新しき製品は ケージー・パレス スネール料理機 等ニ数種有之候 其尚研究と努力に依てガスと同じく

マッチ一本 すぐ火となり 料金瓦斯の1/3 火力瓦斯の三倍 (カタログ呈上)

とまで機械の働きを充分に現す事が出来ました

尚本年も相変ず御引立の程深く御願仕候



ケージー瓦斯機 定價金二十三円也

昭和九年一月元旦

名古屋市中区南武平町三丁目 製造發賣元 丸八製作所 電話中(3)三二四六番 振替名古屋九四〇 私書函名古屋十号

---

絶對無砂搗 専売特許 ウヱタ式精米機

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全國米穀業同業組合 推奨機

△第三回帝國発明表彰有功賞受領 △第十三回發明協会地方表彰優等賞受領

本機によらずして水晶米胚芽米無砂米は望み得ざるなり

(型録特白見本進呈)

名古屋市西区泥江町三丁目 服部商店 電話西一七七六番

---

SIREN TRADE MARK SUPERIOR

製造問屋 各種[illegible] 作業服

名古屋市中区[illegible] 安藤平兵[illegible]商店 電話中局[illegible]番

---

4391型 学生服

冬メリヤス雑貨 残品見切卸値段表 御申込次第呈上

名古屋市中区新里町 伊藤㐂商店 電話中局四三三四番

---

百貨商品 (商報進呈)

SB

合資會社 サービス商會 名古屋市西区[illegible]

---

中雛と若雛 優秀多産の 初生雛

景気恢復の尖端を行く 優秀多産な初生雛

名古屋市南区道徳町西 合名會社 鈴木人工孵化場 電話南局三八八番 振替名古屋九〇一一番

---

絶對平和金ペン付高級 平和万年筆 優秀最新型数十種

定價一円五拾銭 (卸特價八十銭) 定價五円 (卸特價二円九十銭) マデ

新發明平和白金ペン付万年筆 定價一円 (卸特價五十銭) (十四金同様・耐酸性ヲ有ス)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中区八百屋町三 上田万年筆製作所 電話本局三八二九番 振替名古屋五一一番

---

創立滿三週年記念 懸賞愛讀者大募集

養鶏雑誌 鶏友 一部二十五銭送料三銭 半年一円四十五銭 一ケ年二円八十銭(送共)

新聞名記入御申越次第鶏友番組案内進呈

名古屋市中区広見町 鶏友社 電話西四五三九番 振替名古屋二九四八番

一等 [illegible] 二等 [illegible] 三等 [illegible]


---

◎懸賞投票規定

一、投票는本紙面에잇는二十四店中今後取引을希望하는商店名三店以上을官製葉書에明記한後左記所로送付하야주시오

보낼곳
名古屋市中區新榮町九ノ一〇
鮮滿通信社懸賞係

一、投票는一般商店에限합니다 店名入의스탬프를捺印하야주시오

一、投票期間은一月十五日까지本社에到着하게 보내시오 (締切十五日까지)

一、投票는一月十七日右二十四店의店主及各新聞記者立會아래서抽籤하야左記의商品을進呈함과同時에右取引을希望한商店의商號와商品見本을進呈합니다

一等一名 自轉車一台

二等二名 腕卷時計各一個

三等二十名 萬年筆二十本

其他一千名(投票着順)에限하야高級モス襟各一枚式進呈

◎發表는一月三十日各新聞紙上에發表함과同時에賞品을進呈합니다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四

# 恐慌克服에焦燥한 아메리카經濟政策

## 恒榮의豪語도春夢 今後進路는어듸로

【三】 韓普容

### 結論

지난十五日(客年十二月)에 公共事業局長 익쓰氏의 發表한바에 依하면 復興運動開始以來 失業者의게 就職시킨總數가 四百萬에 達하엿다한다 또去十月二十五日부터 産金買上政策實施 即루스벨트의 所謂『新金政策』이 施行된以來弗價의 暴落으로 及其也 인플레의 本格化를 보게된關係로 復興『캠페인』의 主要目標인物價引上도 어느程度까지는 目的을達한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一百五十一億三千五百萬弗이라는 天文學的數字의 巨額의資金으로 朝野가注力하야 運動을 開始한 失業征服의結果가 一千三百萬의 失業軍中에서 인제 겨우 四百萬(政府의發表數字)을 征服하엿다는것은 그러케 特書할 자랑꺼리도 못되는것이다。그리고 失業軍의 就職處로보드래도 길게繼續될 生産機關이안이고 모다公共事業 即道路公園의 建設修繕、軍艦의建造等非生産的方面임으로 이事業이完成되는때에 一般經濟界가圓滑하게되여 그만한失業者를 自然繼續될는지는 아즉도 絶對疑心이다。

◇

또 物價騰貴로 말하드래도 所謂 니라運動의 目標인 一九二六年의 物價水準까지 引上하려면 아즉 前途遼遠의 夢想에 가까운 感이잇슬뿐아니라 此를 主要目的으로 하고 施行된 루스벨트의 新金政策이 英佛其他諸國의 强硬한反對에 逢하게되야 加奈陀外數個國은 벌서 弗價暴落에依한 아메리카商品『뗌핑』防止法이 出現되엿고 米國國內에서도新金政策의 反對氣勢가 熾烈되야 우등財務長官 及 政府最高財政顧問 스프래그氏等의 辭職을爲始하야 非難은 漸漸늡하지며잇다。니라運動이 一般商業에 所期의 成果를보여주지못할뿐안이라 루大統領이 가장岩重하는 農業經濟도 亦是失敗에 歸하엿다는것은 目下『캠페인』中에잇는 루스벨트西部 二十餘農業州를 網羅하야 會員二百萬을 包擁한『農民休日協會』에서 十月二十一日 니라運動에 反對決議하고 正面으로 政府에挑戰을 宣言한事實에 依하야서만도 可히알수잇다。

四十三億弗이라는 世界金保留量의 殆半을 獨占하고 數百億의 海外投資를 것고잇는 아메리카에 尙今一千萬以上의 失業者를 가젓다는것부터 矛盾된事實이지마는 如何튼 現下『캠페인』中에잇는 루스벨트政府의 恐慌克服의 復興運動은 一種無血의 아메리카經濟革命으로 볼수잇는同時에 이革命運動의 結果如何는 現下資本制社會가 資本主義的으로 更生할수잇는가?업는가?하는 問題를 어느程度까지 豫하게되는試練이니만치 이運動의展開는더욱注目되는것이다(完)

# 各方面의觀測

## 今年財界는 多事多難豫想

有賀殖銀頭取談

昨年의日本經濟界는 不況裡에 相當히好轉된것은 事實이다그러면今年財界는 이氣運에다서 一路好轉調로 나아갈가 이에對하야는 無條件으로肯定할수업다 昭和九年度의 歲計가約八億圓의 公債를發行치안흘수업슬것이며 그發行은日銀의引受에依할수밧게업슴으로自然인플레이숀은 必然의勢이다景氣의前途는 樂觀하야可하다는 人氣도 一部에는 잇는모양이나日銀의오픈·마켓·오페레이숀은時機에따러서 繼續하야行하고通貨는 될수잇스면 堅實히統制될것으로 實勢에先行하는投機心理를 豫戒할것은 勿論이다 또今年下半期만을가지고보면그

### 輸出

貿易은日本品에對한 各國의壓迫加重과 對米爲替의急騰으로 前年同期보다 相當히減退하고도 入超를 轉換한時期를 빨느게하고 貿易의前途에一抹의暗翳를投한一面 多少改善될地方農村은 最近의米價低迷와生絲의暴落으로다서그轉換이阻止되고 農村經濟는 重要問題가되라고한다 다사世界列國의 狀勢를一瞥하면 昨年三月의金融恐慌後 米國의財界는 匡救諸對策에 期待하는人氣로 株式、物價가 昂騰케되라고七月頃에는

### 事業

界에도 相當히景氣가 擡頭하고그前途에큰 期待가잇섯스나 米國財界不況의 根柢는深刻하야 大統領루스벨트氏가 行한各種匡救策 特히同氏가 宣布、實施한 NRA도 實行이如意치 못하고 物價는十月을 頂點으로反落되야 株式界도 崩落하얏다그래서 루스벨트氏는 新産金買上策을 斷行하야、十月二十九日부터 海外市場에서市價보다도 빗싸게 金買入에出動하야 弗貨의低落과 物價의騰貴를 다게하라고 하엿다 이政策은 弗貨의低下를 促하야英米크로스는 平價를너머서 一時 五弗四十八仙이 되고日米爲替도 三十一弗 八十七仙을出現하엿스나 爲替의低落이 物價、株式에 反映함은 매우 微弱하고 目下同國에서健全

### 通貨

論者와인플레이슌 主唱者間에論議가 紛然한모양임으로 米國의財界는 當分 動搖가繼續되고 이것이日本에 直接間接으로 밋치는影響이 重大하다 또歐洲金本位 뿌럭을形成한佛蘭西、和蘭、白耳義等의 諸國은 歲入의激減으로 財政上의 赤字를보게되고 오즉英國은 爲替平衡資金制度를 設하야 低爲替를維持하야 昨春以來 그經濟狀況은相當히改善되엇는데 最近의對米爲替暴騰과米國財界의逆轉으로 반다시相當한影響을免치못할모양이다 各般의狀勢는前述과가틈으로 今年의日本財界는 依然多事多難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決코悲觀할것이아니다

## 普銀窮境打開策

商業銀行頭取 朴榮喆氏談

朝鮮의普通銀行이日本의地方銀行에比하야同程度의發達이못되고잇는것은 어떠한事情에基因한거인지 愼重히考慮할問題이다 다만努力이不足한것이라고만할수업다普通銀行이나아갈指針을求함에도 그旣往에遡及하야 源泉을探求反省할일이다 朝鮮의普通銀行最近狀態는 인플레이숀의好影響及一般財界의好調를反映하야 相當히良好한經過를밟어왓는데 곳이것으로써前途를樂觀할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朝鮮의普通銀行은特殊銀行 日本側支店銀行과金融組合의中間에끼여잇고 또信託會社 貯蓄銀行等의 橫的壓迫을밧고잇다 또다른機關도特殊의機能을가지고 또發行券 債券 日本과의連絡 政府

### 資金

의直接受入預金 吸收上의特殊方法 認容等 特殊便益이잇는데 오즉 普通銀行만 朝鮮自體의資金을基本으로 朝鮮金融에當하는困難의 處地에잇다 特히金融組合은 特殊한背景과 組合精神으로 膨脹한勢力은 驚異할바이다 中央金組獨立으로 더욱 그機能을 擴大하라고하며 또大信託會社의出現等四圍狀勢는더욱普通銀行을 困難케하려한다 元來普通機關은모두特殊한使命分野가잇스나特殊强力을가지고營業遂行함으로普通銀行의 營業範圍에侵透하는實情으로 金融機構으로는普通銀行은 四面障壁中에서허덕거리고잇는것이 過言이아닐것이다 이金融機構上으로不振의 原因에對하야는政府의

### 金融

政策에 屬한問題로 當局의判斷에 기달일밧게업고 또는 普通銀行으로 自主的振興의 方法을 考究함을要한다 이곳에는同業普通銀行自身의 內部問題는 勿論相互의關係에 對하야는考察을必要가잇다 以上과가튼 機構中에잇서 普通銀行의

### 金利

産業範圍는 매우縮小되야 中小商工業者에 局限된 渦流的中途에잇다 此等中産階級에對한 投資危險率이 大함은 勿論이다 이局限된 業域에잇서同業者가 서로分立하야 敢拔의規範을 素顧하야 不知不識之間에 讓業의 經營가생겨經營을그릇칠 念慮가不無하다分立으로自然經費의 增加는必然의勢로 資金原價를 노피게되고이結果는 融資 金利도 自然高하나가게되다 低利의資金을供給함은經濟界振興上 緊要함은勿論이다特殊銀行에 對立하야普通銀行이 가장머리를썩이는것은 金利問題인데 이合理的原價引下는 低率의預金吸收의經費의合理的節約을 緊要로하는바 低率預金의吸收는强力의信用에依할수밧게업다 經費의節約은二重三重의出費가안되도록 經營을同一單位로結合함이最適하다 其他 여러가지의諸藥條弊는同業結合으로 가장有効히그目的을遂達되는 獨逸의銀行合理化는 合同으로 有等의點에對하야顯著한効果가잇다고하는 銀行의合理的經營은 오즉個個의經營內部問題임에止치안코 同業者의結成合一까지 進展된것은徹底를缺하고 金融의統制는이것이가장有効適切하리라고確信한다

## 軍需工業의活況

森貯蓄銀行頭取談

今年의金融界는 軍事豫算의膨脹을伴하야 金融의緩慢 低金利는아즉도繼續될것임으로 輸出産業이米國인플레政策에依한爲替騰貴와日本商品排擊으로因하야 多少不利한傾向이나 軍需工業은더욱活況을呈할것이다 最後로 地方農民의狀態를보면 前부터 잇섯고 地方時局匡救事業 或은米價의安定은 多少生活安定의効果가업지안엇스나

### 生絲

價格低落을 伴하야 地方農民은依然苦境에서 버서나지 못하고 以上의農民의困窮은 今後에도 繼續될것이다 國際聯盟을 脫退하야 政治的으로 孤立的狀態에빠진 日本은 또經濟的으로 孤立케되고滿洲國의 建設은 着着進行되고 잇스나 日本軍事上外交上의危機는 더욱 더하야감으로 非常時가解消할 時期를 豫測할수업는 狀態이다 이런重大한때에際하야各人의任務는各그使命에向하야邁進할것이다

## 今年多端 重大懸案

朝鮮取引所理事長 荒木初太郞氏

昨年은 國內的 國際的으로 歷史的 重大事件의連續이엇는데 財界로서는 未是非常稀有의大試練을 經하얏다 그런데 內外各部門에亘한諸多의重大懸案은 그대로 今年에너머온만큼 今後를重視치안흘수업다

# 一九三四年의 日本景氣展望

## 金融…爲替…物價 米穀…貿易…結論

【三】 申泰翊

### 貿易

昨年中의 日本對外貿易은四面楚歌로 各國壓迫을 바드면서도 圓爲替의低落이란威力아래서 超然的으로貿易金額의增加되엿다 即 日本對外貿易을 보면 再再昨年輸의出入合計는 二十三億八千萬圓、再昨年은 二十億四千萬圓이엇든것이 昨年(十二月中旬까지)에는 二十六億三千萬圓에 達하엿다이 昨年中貿易額을 再再昨年에 比較하면 十四億圓增加또再昨年에 比較하면 十一億圓의增加이다 이와가티 昨年中 日本對外貿易은 顯著히 增額되엇스나世界各國貿易은 거의모다 萎縮狀態이엇다 即英國은輸出增加가업고輸入이 多少減少하엿슬뿐이며 米國은 輸出超過가再昨年보다도 減少하엿고 佛國 獨逸等은 輸出入이 不振하엿든 再昨年보다도 더줄엇다 이반게日本의國際收支狀態는 米國의金融恐慌 金輸出禁止國際通貨會議失敗로 各國의惡性的爲替가 繼出하엿든것이다 그러나 日本의對外貿易만은 增進을보게한原因은무엇이엇든가하면再昨年十二月에斷行한金輸出再禁止가잇슨뒤、圓爲替의低落으로因한것이다 그런데이에對하야 圓爲替가 어느때까지 低落할는지 모르는點이잇는바 即昨年中 圓爲替의低落은 一月中을 最低로삼어가지고 彼我裡에 結局은 日米爲替가 一月中二十一弗이엇든것이 三十一弗臺로 十一弗이나昂騰하엿는데 圓爲替의低落으로 해서의 日本對外貿易의增進이 되것이라고 말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것이다 昨年中 圓爲替는 低落이 一貫된것이아니라 結局에는 反騰한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昨年中의日本對外貿易을增進케한것은 大體두가지로 말할수잇다 첫재는再昨年中 圓爲替의低落으로 거의一貫되엇든 影響이昨年中貿易上 나타난것이며 둘재로는 日滿經濟블럭으로 볼것이다 다시말하면 圓爲替의低落影響과 日滿經濟블럭關係로 日本對外輸出의增進 即數量金額이 모두늘엇다 이와가티 輸出額이 增加한것은 必然의勢이지만 一面으로 輸入額도 增加한것은 무슨까닭일가 하면 이亦是 圓爲替의低落으로 支拂金額이 自然增額된것과 軍需品輸入의關係가아닌가 생각한다

◇

이처럼 昨年中日本輸出入額의增加가된것만가지고 생각한다면 日本貿易의好轉으로 樂觀을 가질수밧게업다 그러나 이好轉을 보게된 反面을살핀다면 漠然히 目前의輸出入增額만가지고 樂觀을 갓기가어렵게되어잇다 即世界不況이深刻케되고 이結果는 各國의消費力減退와 이를伴하야 各國은自國商品의 市場擴大를 다른나라에 求케되는同時에輸入防止의對策으로 關稅障壁을더욱노피케되엇다 特히滿洲國建國 國際聯盟脫退로 日本에對한國際感情이 惡化되고또는 圓爲替가 世界各國中 가장만히떠러진만큼 日本商品은거의世界的으로 不買同盟을 當하고잇는터이다 그럼으로 昨年中日本貿易의好轉이 事實이며 또는가장不安을 만히바덧든것도事實이다

◇

그러면 今年의貿易은 어떠케 展開될것으로 보아야 올흘가 오늘의 國際情勢로써생각한다면 日本商品에 對한各國의 强硬態度가 顯著히緩和될것 갓지 안흔만큼 에對한 不安은 容易히 除去될것이라고말키어렵다 또는日本의對外輸出上 首位를占하고잇는生絲의輸出不振도 特別한打開策이 업는모양이다 그러므로 以上의事情을가지고는日本貿易은 依然不安에싸인것으로 볼것이다 그러나이에對한樂觀論者의말을 드르면各種貿易統制를 國家의權力으로써하고 한便으로는 新市場의開拓또는日滿經濟블럭等으로 今年貿易도 順調로나아갈것이라는 만약에減退된다고 하드래도 昨年과큰差가 안생길것이라고한다

### 結論

끝으로 오늘의日本景氣는몃가지의要素로되어잇는가 함을말할必要가 잇는바 이에對하야는 經濟的活動과 經濟以外의政治的活動으로 大別할수가잇다即

▲日本에는 纖維工業이 長足進步를 하여온만큼 이로因한景氣가 생기고

▲金輸出再禁止後 圓爲替低落을 伴하는景氣

▲膨大한豫算을 伴하는인플레景氣

▲日滿經濟블럭 結成이되고 이를伴하는 景氣

이와가티 目下의日本景氣는여러가지의 要素로 되엇것이다그런대 이要素中 纖維工業는圓爲替低落을 背景으로 하여가지고 對外輸出의躍進을 나타내인反面에는 世界中主要各國도 亦是金本位를 停止하고또는 關稅障壁을繼續하야노피는만큼 日本의纖維工業의勢가 적기며 爲替떰핑도 그威力이 減退치안흘수업게되엿다 그럼으로 오늘까지 日本景氣의 要素이든 이두가지는 이미그絕頂에達한것으로볼수가잇다 다만압흐로繼續하야作用할要素는 인플레景氣와日滿經濟블럭이다

▲滿洲國은 그施設其他에잇서 必要한機械其他 모든것을 日本으로부터 繼續하야 輸入케될것임으로 이를伴하는日本 景氣도 持續性이잇는것으로 볼것이다

▲日本의 인플레이숀은今年도 繼續되고잇다 新豫算은 昨年보다 多少 減額되엇스나 依然 膨大한數字가繼續되고 잇다

이것으로 보아서 今年에도 日本景氣는 繼續될可能性이잇다고 말할것이다 그러나이景氣는 全般的이 아니라昨年과가티 局部的 임으로 보아서 大景氣를 바라는것은 疑問을 갓는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의 日本 인플레이숀은 軍需工業을 主로 한것 임으로 大衆的 景氣를 期待키어려운 理由가이곳에 잇는것이다(終)


# 謹賀新年

東部

京城市外上往十里三六一番地 朝鮮硝子製造所 李昌根 支店京城府昌信洞多六八番地 電話光化門二四六七番

京城市外淸凉里 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敎 時兆社

京城東大門外安岩里一一六 崇仁釀造所 主金漢泰

京城市外往十里驛前 馬車組合

京城東大門外新設里一二六 추탕집 兄弟酒店

京城市外新設里一一一番地 熙星醫院 主趙公熙

京城市外往十里驛前 三成運送店 代表崔弼成 (電話本局二八七九)

京城市外上往十里 光武劇場 主朴道秉

京城市外安岩里 開運寺內 月岩亭 主金炳烈

市外新堂里二二五番地 綢緞布木商 光玉商店 電話本局四一三〇番

東大門外淸凉里驛前 金昌精米所 主金應均

京城市外安岩里 米穀雜貨商 安泰榮

京城市外安岩里 開運寺住持 李碧峯

京城市外新堂里一六 綢緞布木商 金千龍商店 (電話本局二五六二番)

市外淸凉里 淸凉寺 申慈英

市外下往十里六六四番地 順興精米所 主韓順文

京城東大門外淸凉里驛前 順興自轉車店

金海

金海郡廳 電話四番

金海郡金海邑長 牛島熊記 電話十五番

金海郡駕洛面 職員一同

金海郡生林面 職員一同

金海郡下東面 職員一同

金海郡仙岩里 金英守酒造場

金海郡菉山面 安承太酒造場

金海郡酒村面 曺璨煥酒造場

金海郡長有公立普通學校 校長陳內德右衛門 訓導吳奇豊 訓導辛永安 訓導小笠原高美

生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海水利組合 電話九番

金海邑內 金海劇場 主金武日

金海邑內 土木建築請負業 具四錄

金海邑 衡平社金海支部

慶南合同銀行 金海支店

金海崇善殿 參奉 金性學

金海邑內 合同印刷所 裵鍾璉

金海邑內 共立印刷所

金海邑內 李鳳錫

金海邑仙岩里 孔在瀅

金海郡菉山面 職員一同

金海郡長有面 職員一同

金海郡酒村面 職員一同

金海郡上東面 職員一同

金海郡駕洛面 金成鶴酒造場

金海郡長有面 李承秀酒造場

金海郡下東面 姜太璉酒造場

金海郡菉山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海郡金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海郡酒村公立普通學校校長 西浦辰造

金海郡新文尋常小學校長 齋藤章

金海金融組合 電話二六番

金海邑內 孔小明商店

金海邑內 土木建築請負業 金敬文 電話二四番

金海邑內 裵乙謙

金海郡仙岩里 金聲漢

金海郡長有面水佳里 面協議員 尹熙炳

金海郡長有面栗下里 面協議員 朴培潤

金海郡長有面柳下里 面協議員 金容範

金海郡長有面蘆達里 面協議員 朴秀敬

金海郡長有面官洞里 醫生 姜尙玉

金海郡長有面水佳里 尹善炳

金海郡長有庵 主持 池龍琦

金海郡長有面柳下里 崔明俊

金海郡長有面官洞里 田中喜作

金海郡長有面茂溪里 尹泰玉

金海郡長有面新文里 姜在洪

金海郡長有面官洞里 李承驥

金海郡長有面茂溪里 趙興奎

茂溪里 吳震甲

茂溪里 白三德

金海郡生林面防水楔 創立事務所

金海邑三洞里 李康瓚

金海邑三洞里 孫秉鎬

金海邑三洞里 李康瑾

金海邑花木里 朴源達

金海郡駕洛面 精米業 裵鍾寬

金海郡駕洛面竹林里 精米業 李安浩 金仁錫

金海郡駕洛面竹洞里 尹相錫

金海郡駕洛面竹林里 坂井富之輔

金海郡駕洛面 植田義夫

金海郡駕洛面竹林里 金興浩

金海郡駕洛面竹林里 角一山林會社

金海郡駕洛面竹林里 裵戎守

金海邑 天野農場

金海郡菉山面美音里 金聖鉉

金海郡鳴旨面 漁業組合 職員一同

金海郡長有面栗下里 馬田淸太郞

金海郡新文公立尋常小學校 管理者 春木新助

金海郡長有面茂溪里 日用雜貨商 齋藤マツ

金海郡長有面新文里 趙淯相

金海郡長有面官洞里 山時伊作

金海郡長有面茂溪里 張永才

金海郡長有面釜谷里 前原勝一

釜谷里 崔伯植

官洞里 福田柳太

金海郡酒村面農所里 朴相勳

酒村面內三里 張熙植

酒村面農所里 久保重次郞

金海郡酒村面望德里 肥料商 春木商店

金海郡酒村面農所里 山本榮樹

梨津

咸北梨津港 漁業海產商 森役造

咸北梨津港 綢布雜貨商 李嘉鉉

觀海醫院 院長 兪寬植 南昌玫

咸北大湖洞 綿油肥製造業 朴福龍

咸北洛山港 綿油肥製造業 尹時圭

咸北洛山港 綿油肥製造業 金漢益

咸北洛山港 綿油肥製造業 金完俊

咸北洛山港 綿油肥製造業 高性協

咸北洛山港 綢布雜貨商 金昌男

咸北洛山港 大北商會

咸北洛山港 李錫睦 別名 中村啓太郞

咸北洛山港 柳貞根

# 社會部記者의手記(一)

## 三三年의手帖을불사루면서 外勤取材의苦心談

신문사의 총각은 사회부(社會部) 외근긔자에잇다 아일처일, 시정잡사와 사회면기사를읽는 독자는 보통 평범히 읽어버릴것이다, 그러나, 때를딸아, 어떤사건에는, 단 몃줄만되는 조고마한 기사에도, 외근기자의 무상한수고와 또 적지안은 금전의소비가잇는때도잇다 한갓 충실한 보도를 위하야 사건이 발생하는 암뒤를 물 불 헤아리지안코 달리는 외근기자의 희비의고심은 한두가지가아이다, 이제 지나간 일년중, 우리 신문사 사회부기자들의 활동리면을적어, 과거일년을 청산코저한다

### 搜査의一方만過信타가 徹夜活動도水泡로 嬰兒斬頭事件餘談

H記者

작년일년중 사회부의제일선외근기자를 가장애태운사건은 작년오월서대문 경찰서(西大門警察署)관내에서 발생되엿든영아참두사건(嬰兒斬頭事件)이엇다 사건의마즈막끗을 매즌다음에 보니별다른사건이 안이엇스나 사건발생이후해결까지의 이십여일은 실로물면불휴의격렬한활동을안할수업섯든 만큼 신문사외근기자의 긴신경을

**바늘끗가치** 날카롭게 하엿다그때 서대문경찰서를출입하든기자들은 거이신경쇠약에걸린 상태이엇다 물론사건해결의 직책임을가지고 상관의 눈총쌀은 독려와세상의비난을 물밀가치맛고 잇든형사들의 눈물겨운 고심이야한층더한바는 잇섯겟지만

◇

이사건의 마즈막해결을보는 그밤ー머리업는 몸뚱이를파내고 범인을수색하든그날밤 가장 빗나는명예의 성공을할기회를 가젓든 그밤의책임을가젓든 나로서 사건수사의

**속알맹이를** 붓잡을뜻 붓잡을못하다가 결국다시업는 최대의 실패를하게되엿든것은 우금기자생활중닛지못할기억중의가장큰것의하나이엇다

◇

말하자면 사건은, 퍽흥미잇섯다 범죄수단도 참혹하엿거니와, 범인에대한것이며, 범행의 동기며, 모든것이, 전연의문이엇기때문에 사건에대한 상상의범위를 다각적으로 광범위로할수잇섯든만큼, 기자의활동무대는 극히넓어 활동여하에 딸아 심이분독특한 수완을발휘할수도 잇섯다 그반면에

**실패하기도** 쉬운 퍽어려운사건이엇다, 경찰로서도수사는 과연힘든 것이엇다, 그런데, 내실패담을 쓰기전먼저 한마디해둘것은 사건은, 조선의 풍속이란것이깁히 숨어잇는관계로 어데까지던지 「조선적」 대사건이엇다는것이다

◇

그날밤ーー조간 시내판야간외근을마치든 내가 서대문경찰서문안에 들어서기는아홉시경이엇다 이날밤아 형사와 정복순사의 수효는적엇다 텅비엇섯다고할까ーー그러나 번뜻뵈이는 닭으경찰서의형사한사람은가장일는듯이 뵈이려는그태도에넘어나큰흥분을가슴속에 숨엇다는것을, 반면으로 말하는것이엇섯다 그태도에는

**놉흔숨결이** 유리한겹을두고 보이는듯햇다이에 「무엇이잇다」하는눈치를 보고나서나는 우선경비전화여페 안저서약삼십분간 눈치를살피기로하엿다 과연일은 심상치안은것이 잇는모양이엇다 경찰에서는 각서에응원 형사를구하고잇섯든것이다 그러나서원들은끗까지 아무일업다는듯이 뵈이려고 애쓰고잇섯다 나는 우선그자리를 피하는것이 득책이라 생각하고 길거리한모퉁이에서 경찰서에 출입하는 는사람이 누구인가만 살피기로하엿다

◇

이윽고 밤한서지나 형사대는짝짝이 갈리어 여러곳으로 호터지기시작하엿다 그런에삼사명의

**동료를불러** 길가에매복하고잇든 우리들은형사대의 뒤를미행키로 하엿다그러나모다노쳣다 미처자동차의준비도 업섯고 손도모잘엇섯다그러나 그중에서도 유력한활동을하리라고짐작되는 K주임일행의뒤는어렵지안케딸아섯다 그일행은 그때 문제의「무당집」으로가서 몃사람더리고오고는 순사와형사를그집에직히게하엿다

이것을본우리는 역시범행관게는「무당」과「빽국이」란 괴인물 에게 잇다고단정하고그관계를완전히련결식히기에 열중하엿다 왜그러냐하면 그런에 우리지면을 치장하엿든만큼우리의흥미와 자신은완전히 「무당과빽국이」에쏠리엇든까닭이다 즉병든남편을두엇든무당은 동리의

**빽국이라는** 할일업는 룸펜을식히어 아이머리를갈리오게하야끝을내서 먹게하엿다는관측이엇다 무당과빽국이가 범서권에경찰에들어가엇든것은 물론이다

◇

그리하야 우리는 새벽세시반까지나 자동차를몰아가지고 형사대뒤를몃번이나딸리엇다혹은시내청진동으로 의주통으로 시외아현뒷산으로룡산방면으로 그런데 밤이새여갈수록 맹렬한활동을하는 경찰의뒤를따를수록우리의의문은깁헛다 경찰의활동은 「무당과빽국이」를련결식히기가어려운점이 여러가지잇섯든것이다

그러나 한번「무당과빽국이」라는두인물이 사건의해결의중심이되여잇다는관측을 굿게가지고잇든우리는 아주

**그선입견의** 포로가되야달리생각을못하엿다 그러고 경찰의뒤를따르고따르다가 더 상상력을조용할수업시피로하여저가지고래일일을위하야부득이돌아와 잠간눈을부치엇다

◇

잠간눈을부친그때에 우리의 하로밤노력은 수포에돌아갓다 아츰에일어나니 모신문사의호외이다 호외!호외!머리업는 몸뚱이를 파내엇다는호외이엇다 그것이우리가 차저내이려는것이엇슴을생각할때 땅속으로라도 숨어들고십헛다 그러면어떠케 그러케되엿든가 그대답은극히간단하다 경찰당국에는미안하나마 당시

**경찰의활동**이 넘우도 엄청낫든것을 말하야 내실패의후일담으로 삼지안을수업다 그때경찰의 활동은 단순히일개 서대문경찰서외에 한하엿든것이안이고 경찰부장이 직접 서대문서에와서 독려하고 경찰부의형사과장이 직접지휘를하고 잇든만큼, 경기도경찰전체의 총동원적련합활동이엇다 그것은 형식뿐이안이고실제동원된상태가 그러하엿다그러나 실제의활동을보면 그러한중대한 활동을하면서 서대문서내의 사법계와고등계를

**경계선으로** 활동은완연 허매가 갈리어수사의방침과 경로가 완연히 대립된상태이엇다 그리하야 머리업는몸둥이를 파내인이튼날 아츰ー안이오후까지 한가지 범죄를가지고 판단이아주대립하야 두가지 계통의범인과 관계자를 한류치장에 사오명식잡어너엇섯다 이때 K계의 한편측활동을넘어나 자세하게본우리는 K계의활동이 서대문서 활동의 동일한계통의중요한 부분으로만 지나치게 미덧든것이

**실패에전부**이엇든것이다 그후여게서공한파의 형사들은「푸ー푸ー」웃고잇섯다

그런데사건에 한 경찰서안에서 동일한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처럼엄연히 대립되기는처음이다

◇

그러고 이사건을통하여가장

**문제된것은** 모박사의 감정이 컨허벗마젓든것이다 즉은아이의 목을잘렷든것을 산아이목을 잘렷다고 아주「과학적」판단을내리엇든것이다그때조선인형사는단연그러치안타고주장하엿섯다그리유는잘리운목에는 조선백지(白紙)조각이무러잇섯스나 그것은조선풍속에의하야 죽은다음에감장할때에 찻든것이라고생각된다는것이엇다 이주장은조선인이안이고는 할수업는어려운단안이엇다

그러나 경찰의수뇌부는조선인형사의말을귀혀 듯지안코 「권위잇는의학박사」의감정대로 수사방침을세우기를 엄명하엿다 이것이사건수사의출발을근본적으로그릇첫든것이다 (끗)

### 號外!號外! 입술이악물리든號外 萬歲!刑事의歡聲

×월×일아츰새벽까지외근을하다가부득이 다소눈잣을자고열시나되여 이러나저 이런과가치사에들러서 당임한C경찰서로갓다 막C경찰서 현관에을라서려고할때에 구진비가촉촉나리는종로길판에서 호외배달의종소리가요란하게들렷다 나는그만도루한길로뛰여나와서호외를한장어더드럿다 그것은당시 서대문경찰서관내에서이러난유명한 엽기사건인영아참두사건의 피해자의 몸동아리가 발견되엿다는 모일본신문의 호외엿다 나는그만 입술을깨물엇다

◇

웨나하면 벌서 이십여일동안그사건으로인하야 밤잠을 자지못한것은 그만두고도 바로그전날밤은물론 아츰네시까지도 가튼사회부의H와R과함께 서대문서에 본거를둔 그사건을위한특별수사대의 뒤를자동차로 쫏차단녓고 그날아츰에 늣게출근한것도 거기원인이 잇섯든까닭이다 사실그전날밤에는 그일본신문사의기자는 서대문서에 오지도안엇고 자동차를 서대문서건너편뒷골목에 세워노코 밤을샌것은 우리뿐이엿든것이다

◇

그러고 캄캄한 호린밤중에아현리뒷산을 더듬더듬 형사대의 뒤를따라올라가다빈무덤속에빠저서 몸서리처던것도 우리뿐이엇다

◇

호외는 그러나 불충분하엿다 모일본신문기자와 둘이서 비오는길을 자동차를달려서 동이가발견된 룡산서소속 ××리주재소로갓슬때 그곳주임도 역시 동문해한다 왜그러나 그들도그아이몸동이의임자를아려가지고 그무덤으로 달려갓더니 웬걸바로 오십분전에 서대문서의특별수사대가 동체(胴體)를 파갓다한다 특별수사대는 동체의발견에는 성공하엿지만 발견된이튼날범인은 이미 룡산서에잡혓다고 보고가도경찰부에 드러왓다 그래서는 이일때문에일부러 시내각서의사법계형사의 정예분자를모아서특별수사대를조직하고스스로대장격이되여수사를지휘하고잇던야촌(野村)명형사과장의명예에도관계될뿐아니라이십여일동안의 불철주야한 활동이수포로 도라간세움이다 또한 자긔관내에서 이러난사건의 범인을 다른경찰서에 빼앗겻다고 하는것은 그경찰서의 책임자로서서장의 면목도 업서질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이일은 선발되여 명예의 수사에참여하고잇던 특별수사대 전부의수치다

◇

패장의격인 야촌 형사과장과 서장은 서대문서장실에서 테불을복판에노코 마조안저서 창박게떠러지는 낙수물을 무심히바라보고잇섯다 바로그때 다서장실과는 돌악을격하야 마조안저잇는서대문서 형사실로 부러는 때아닌『만세』소리가 들리며 수사대원들의 회색이 만면한얼골들이 취조실문을 여러제치고뛰여나왓다 그때까지 혐의자로서 취조밧고잇던배구석(裵求錫)이가드되여 범행을 자백한그순간이엿다

KK記者

### 突進·冒險이잇을뿐 길넘는담장을넘어들어가취재 鍾紡女工罷業其他

나는 신문기자로서의 직업생활을시작한이래 성공이거나 실패를막론하고 이러타하고 내노흘만한무엇이업다 그러나 부터잇는대로들추어 낸다면다음의 멧가지를적기로한다

◇

지난 구월하순이다 동대문밧종연방적(鍾淵紡績)경성제사공장의녀직공 륙백여명이 파업하엿다는 소식이들니자 대종방의 녀직아성(牙城)에 륙백여명의 녀직공군이 유발을 시작하엿다는것은 그것이확실히 중대한사건이라고 생각하엿다 밧비파업일어난 제사공장압헤다다르자 맨처음눈에띄우는것이 공장압헤 뭉치여잇는 녀직공들이다 십사오세내지십칠팔세의 나젊은 직공들의얼골에 흥분에넘치여 창백한얼골이 벌거케되여가지고 공장측을상대로 무엇이든지 무서울것업다고하는 그들의 태도는 보는사람으로하여금 어상한 충동을밧게하엿다

◇

하여든 나와사진부의 윤군은먼저뭉치여잇는 녀직공들의 사진을박으려고 하엿스나 의외에도 공장측에서 사진박는것을 극력방해함으로 사실상 민망스럽기짝이업섯다사진한장이라도남몬저보도하여야 될터인데 이못난친구들이사진을못박게방해한다는것은 생각할사록 분이솟아올라 견딜수가업섯다그래나는담 노바가야로(馬鹿野郎)하고 조건도업시 맘을흥켜잡고 네가올흐니 내가올흐니하야 서로 다투는동안윤군은 녀직공들의사진을 박는데 성공하엿다

◇

사진만은 박엇으나 그들직공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파업한원인을알어야할터인데 동대문서의정사복경관이 수십명이나 출동하야 공장내외를 물샐틈업시 경계하고 직공들의 출입을일체엄금하기때문에엇더케할도리가 업섯다다만공장안긔숙사에감금되여잇다는직공을만나면모ー든 사실을알수가잇겟슴으로긔숙사를차저갓섯스나길반이나넘는담을 넘지안코는 엇더케할수가업슴으로 경관이나 공장측에발견되면 발견될치고 담을넘어가 요구조건과 파업동기를 들은후 그날석간에 사진과가치 사건내용의일체를 보도하고 스스로깁븜을 마지못하엿다 이것이그러케 성공이라고 할것까지도업스나 나는상금것 이만한통쾌도맛본적이업섯다

◇

지난칠월이다, 조선일신문과일본문신문에 모경찰서 모형사부장의 독직사건이라고하야 삼단사단의 제목하에 장문의긔사가 게재되자 편즙자는『남의 신문에 이런중대한 긔사가 실리엇는데 당신은 엇떠케 된일이요』하고 성화가치 독촉한다 그러나 나는이형사부장의 독직사건운운의 리면에는 복잡한사실이 숨어잇슴을알엇다 모모극장사이 대립되여 세상의풍설은 모경찰서 모형사부장은 저편극장에가담하고 그장관계의 모상금관청관리는 이편극장에 가담하야 량편이모다 중상과테마로 신문긔자를 리용하야 자긔들의 행동을 옹호하려는줄을 알엇다

◇

고약한놈들…흥행 기업상경쟁이면 경쟁이지 소위관리가극장에가담을 하다니또는 사회의 목닥으로 자처하는 신문긔자라는작자들이 극장측의 긔사를쓴다 아서 삼단사단의 긔사를쓴다는것은아모리 생각하여도 이사건만은 극장과극장사이의 분쟁내막과모관리와 모형사 부장간의 관계를 충분히조사하야 극장측이나 경관측이내지는 긔사를 게재한신문 긔자들의 행동을 일일히 마천하 독자제군에게 보도하려고 밤마다모모극장을 내집드나들드시 다니면서신문긔자 형사들의 출입행동을엄중히살피엇다

◇

노력하는나에게는반드시특수한긔사가 생기리라고 큰마음먹고 열심히 살피엇스나신출긔자라 긔사자로 채집의수단이부족하여 하로잇흘 날자만길어져 드되여 생각과가티 보도의책임을다하지못하고 긔사한줄 쓰는것업시 말하자면 이미달은신문긔자가쓴 신문긔사를 특종긔사로지위를 놉혀줄뿐 이엿섯다 생각하면 신출긔자가 빗마즌겨냥에넘어 큰흥분과 의분을가젓섯고또시간의 관렴이 업시아무때나조사하면 된다는 생각이들엇든것을 다시금 뉘우치고잇다

LM記者

### 人生哲學의各가지 社會部의뉴ー쓰! 編輯記者의붓방아

사회면『뉴쓰』는세상에허는것마다『딱하고』『기매허고』『눈물날일』뿐이다 허다못해『일원짜리회재』와『전치사일간의 경상(輕傷)』이라는교통사건의결과는 물론원인에잇서서도 모다 눈물날이안이면기막히고딱한것뿐이다

금년십이월일일부터 어린난일로만보드라도 도사건에잇서서는 전과죄도십범오송찬(吳承讚)이잇고 나히일흔다섯살에배운것이 도적질하는것밧게업서 월수업시십범에얼범을더하고서도 천연스럽게경관에게 버티리정규(李正圭)란로인이잇다 이애구색을마추어 아홉살난소녀가 꼬임을바다도적질을하야 저도게에로소와남녀의격을마추엇다

◇

조선사람이 때때로속어내려오는풍수설(風水說)은러사가오랜만치 아직도그미신의뿌리가 깁히백엿는지 경북성주(星州)군하에서는 륙십여명이매장하면 번괴가난다는산에 억지로 장사지내려는집에 달려들어금방출관하려는관에란투극을연출하야그들이얼마나행복을원하고 불상사를실여하는가를보여주고

◇

세상이무엔지남녀가무엔지도 모르는열다섯살된코흘리개가 씨를그레도『랑을보러고』는가식혀다가 사흘만에 남편의목을 졸나죽이어 어시호조혼의폐풍에봉화를들어 락보러든 부모들로하여금 간담을서늘케한일이금천(金泉)군하에잇섯고

◇

나히사십여세에어린가생에거미처서『일금사만원야』의소청수를선선히떼여주어 이얄구지고 쌀쌀한사회에저옥히 망세조군 풍성풍성한늣김을준근대의호인 광양(光陽)사는최(崔)모가잇섯고

◇

그나그뿐인가어린애생간먹는 문둥이권호경(權虎景)은사형은바덧슬지언정『어린애고기맛은 소고기맛과 갓텃조』하고재판장에게답변하야단연『그로미각(味覺)』의첨단뉴쓰를 발휘하엿다

◇

사회면편즙자로안저서보는것이이따위들뿐이라 이따금식이런사건이다시 기억될때에는 저윽히 무시무시함을 금치못하는수도잇다 이러튼저러튼이게조선사회상의 그날그날이라고생각하면 결국딱하고기막히고눈물나는일로조선사회는딱찬것가터저서 이도저도다귀찬어지니 에라!이만하고 붓대를 던저볼거나!ー

C·C記者


謹賀新年

羅津 羅津港 金京俊

羅津港商業組 申敬天

羅津港春日町 內外科·小兒科 產科·花柳病科 泰安醫院 京城醫學士 朱應鎭 李泰根

鐵道工業株式會社 京進組 安龍錫 李炳益

羅津料理業組合 丸葉、羅興舘、春帆樓 日乃丸、八八亭、梅乃家 三穀、明月舘、花月樓 秀乃家、朝日、時壽

羅津港間依洞 水產物委托販賣組合

羅津齒科醫師會(イロハ順) 中央齒科醫院 院長 盧龍奎 田口齒科醫院 院長 田中靜雄 鈴木齒科醫院 院長 鈴木公重

羅津港本町 各國時計 蓄音機 眼鏡 販賣修繕 三光堂時計店 主 金龍星

新安公立普通學校長 佐藤秀雄

羅津港間依洞 龍江屋 高昌玉 酌婦一同

鐵道工業株式會社 近藤事務所

松本組配下山本組 土木請負業 羅雲

西松組 上野事務所 上野仁右衛門

羅津麻蠶場管理者 金淵學 聖鉉

倉井西松組現場 德丸勇

姜東洛

富田自轉車店 主 朴李俊

羅津港町一丁目 銀波寫眞館 技師 金泰元

新安面長 齋藤長治

明湖洞 金鳳翼

明湖洞 申基石

明湖洞 申元協

明湖洞 申仁甲

羅津港 姜東明

李萬壽

羅津港間依洞 金順金

羅津港間依洞 金奎鐵

羅津港間依洞 金相鼎

港町二丁目 各種時計類 眼鏡蓄音機 日新商店

金琪宅

港町二丁目 米穀海運業 辛鍾昇

港町二丁目 德興燒酒 吳殷成

綠町鐵道所入口 新安商 李良福

藥業 壽山藥房 主 朱東植

西松組 內野喜三郎

新安洞二二ノ九 嚴載洙

港町一丁目 草島洋靴店

大倉土木株式會社配下 朴昌玉工場 朴太順 朴浩鉉

綠町一丁目 米穀貿易 委托販賣 泰安商會

新安洞 崔弘濟

京城商會 黃應壽

命致館 羅津旅館

市場 李夏卿

四平街 滿洲四平街 尹一路

四平街 特產商 平和商會 電話(長)二六四番

南滿洲四平街 特產商 廣信號 電話(長)四四九番

滿洲四平街 特產商 信益商會

滿洲四平街 朝鮮人會 電話一〇九番

四平街 半島商會本店 主 申昌學 電話長三三五番

四平街 特產商 開信商會 主 金昌源 電話一五二番

滿洲國四平街 內科小兒科 共濟醫院 醫學博士 高文龍

瑞興

瑞興邑內 濟衆醫院 院長 安泰熙

瑞興邑內 黃海釀造場 安永國

瑞興郡邑內金剛果樹園 金光善

瑞興邑內 張大翼

瑞興邑內 李光翼

瑞興郡瑞興面 許烜

瑞興邑內 黃輪模

瑞興邑內 李成魯

鄭熙淳

瑞興面 申衡國

瑞興邑中華料理 迎陽館 主 崔永煥

瑞興邑 朝鮮料理 南川館

瑞興邑 山月舘 金仁明

龍坪面職員一同

龍坪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平山郡文武面文風市 郭道源

瑞興邑內 李[illegible]翼

# 雲峴宮의 봄

琴童 作 □山 畫

廿의七

대궐에서 조대비와 홍선이 왕위승계자에 대한 의논을 거듭할때에 김씨문중에서는 또한 김씨로서 회의가 열렷다 살아 잇섯스면 당연히 이 회의의 어른이될 영은부원군 김문근(金汶根)은 불행히 작년에 별세를 하고 그 자리에 모힌 령의정김좌근 그아들 김병기 조카 병필 병덕 병학 병귀 一족 김흥근등이 모힌 이 좌석에는 김좌근이 좌장이 되여 회의가 열렷다 一가 부침의 악다른 골목—지금 자긔네들의 발아래 놓인 커다란 구렁텅이를 드려다 보며 그들은 전전긍긍히 의논하엿다

이런 경우에 림하여 언제던 긔묘한 꾀를 내여서 난국을 타개하는 재간을 가진 김병긔도 이날뿐은 아모 의견도 내이지를 못하엿다

「자 말들을 허게 어떠케햇스면 조흔가?」

김좌근이 허연 머리를 들면서 이러케 의견을 무럿지만 거기 응하는 사람이 업섯다

누구? 그새의 자긔네의 세도를 가제삼어 종친이라는 종친에게는 모도 원함을 진 자긔네의 일당이엇다 대행왕께 아드님이라도 잇스면여니와 그러치 못한 지금에 잇서서 어느 종친 한사람 자긔네 일족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잇슬 까닭이 업다

흥은 생질이 되며 흥은 외손주가 되는 정당한 왕자가 업고 종친人가운데서 누구를 모서오지 안흐면 안될 지금에 잇서서는 그들은 자긔네의 입으로 지적할만한 적당한 사람을 가지지를 못하엿다 서로 드믈히 다른 사람의 입만 처다볼 뿐이엇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자긔네 일족의 몰락을 분명히 직각하엿다 순조대왕의 대로부터 지금까지 삼대채 보름人달과가티 빗나는 영화에 취하여 잇든 그들은 지금 자긔네의 아페 니른 몰락의 구렁텅이를 보앗다

「아버님」

드듸어 병긔가 입을 열엇다—

「결과를 기두를 밧게는 도리가 업겟습니다. 대왕대비전의 一존에 달린것이매 여기서 이러타 저러타 하면 무얼하겟습니까? 결과를 보아서 어떠케던 선후책을 강구하여야지 그밧게는 도리가업겟습니다」

「만약 대비마마께서 어느분을 추천하느냐는 하문이 계시면?」

「그때는 누구던 그중 왕자의 덕을 가진분을 한분 추천할 다름이올시다」

「그게 누구나 말이다」

「생각하고 연구해 보겟습니다」

이러케 대답은 하엿다 그러나 이 좌석에서 가장 이번의 일에 마음 태우는 사람은 병긔엿다. 김문중에서도 가장 나히가 어리고 또한어린만치 교하고 혈긔만흔 병긔는 따라서 가장 종친들에게 미움살 일을 만히한 사람이엇다

그날의 회의는 아모 결론도 엇지 못하고 흐지 부지 산회를 하게 되엿다 누구 그럴듯한 종친을 한사람식마음에 먹어두엇다가 이제 열사흘날 대비의 아페서 회의가 열일때에 추천을 하기로 작정을하고 제각기헤여젓다

나올때에 병긔는 병학을붓들엇다

「형님!」

「?」

「더 생각할 나위도 업습니다 몰락이올시다 요행 생명이부지되면 시골로 피해서 학이나 희롱하며 여생을 보내지 더 생각하고 연구할 나위가 업습니다」

거기 대하여 병학도 탄식하엿다

「잘 생각햇네 그러치만 생명이 부지될지 못될지 그것부터 알수 업는일이 아닌가?」

「천명—인력으로는 무가내하올시다 만월도 이즈러질때가 잇겟지오」

그러고는 무슨 말을하려 병학을 버러 두고 자긔차로 달려갓다

# 謹賀新年


木浦

朝鮮棉花株式會社 電話三〇四番

木浦府海岸通 南北棉業株式會社 電話四〇九番

木浦獸肉販賣營業組合

木浦 金曜會

木浦府廳

務安郡廳 務安産業團體 職員一同

道會議員 文在喆 電話六二〇番

商工會議員 任鍾文 電話三五八番

太陽精米所 府會議員 金佐基 電話七四二番

木浦府內各公立學校

私立貞明女學校

私立永興學校

木浦府湖南町 富蘭翠病院 醫師 崔燮 電話一四一番

木浦府南橋洞 和平醫院 院長 鞠淳弘 電話九五九番

木浦府昌平町一七 紙物賣買 紙袋製造 姜大振紙物商會 長電話五二〇番

木浦布木小賣商聯盟會 無順
金豊商會 電話二五四番
金在植商店 電話一六七番
方德順商店
萬盛商會 電話四四三番
裕豊商會 長電話六三〇番
金永采商店 電話八二五番
安癸商店 電話九四四番

道會議員 府會議員 權寧禮 電話六二七番

牛島醫院 公醫 金燦澤 電話八〇二

中華料理 아리랑카페鞠翠館 主 朱永福 電話九一一番

木浦府港町一番地 木浦問屋組合 電話五一五番

木浦府榮町一丁目 木浦籾摺業同志會 電話五一一番

木浦府大正町 木浦麯子合同株式會社 電話五六一番

木浦府榮町 南一運輸株式會社 電話四二七番

全南棉花會社 電話七六八番

木浦府旭町 大倉護謨工業所 電話八一七番

漢南旅館 主 白南斗 電話六一九番

趙贊鄕釀造場 電話五〇二番

玉山堂藥房 主 朴玉斗 電話五五二番

木浦 朴萬年硝子店 電話四三番
支店 光州湖南銀行前 丸萬硝子店 電話一〇四番

木浦府竹洞 木浦洋靴店 主 卓相祚

南橋洞 柳屋洗濯所 取次電話七六四番

盛文印舖 電話六〇四番

海南邑 李元鎔

金承太 電話八一九番

櫻町 日出亭 電話二二三番

南橋洞 鄭燦珉

櫻町 松竹亭 電話四五三番

木浦穀物商組合 電話五二九

祥星合名會社 電話三一一番

木浦釀酒株式會社 電話八三一番

木浦府幸町 東亞婦人商會木浦支店 長電話二二番

布木商 金俸錄 電話七〇八番

木浦府榮町 朴泰俊商店

裕豊商會 朴正允 電話六八三番

丸光精米所 金鍾沂 電話六四七番

木浦南橋洞 申權三

精米業 李同根 電話九一五番

朱權泰

木浦府幸町 鄭仁浩

湖南銀行

木浦府榮町 盧偶奎

大丸洋服店 主任 榮吉

南橋洞 江景館

本町 中華料理 大和舖 電話六三七番

木浦鮮人飮食店組合

朝鮮日報社木浦支局 支局長 朴元 總務 尹商鉉 記者 薛峻碩

木浦無盡株式會社 電話五四四番

木浦劇場 主 李再鳳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木浦分店 主任 金有基

木浦券番 電話九二六番

木浦府竹洞四三番地 蔘茸唐草 藥種貿易 都散賣商 南和堂藥房 主 朴稚彬

木浦府竹洞 合資會社 旺生堂乾材藥局 代表者 柳官五

木浦府竹洞二五 普生堂乾材藥局 主 金會棡 長電話一四四番

木浦府南橋洞 蔘茸唐草 藥種貿易商 南益堂乾材藥局 主 李益烈 電話九二七番

木浦府南橋洞 外科 湖南醫院 電話七二番

三世醫院 院長 曺秉璉 醫師 林李坤

木浦府南橋洞 金炫祚藥局

辯護士 金聲浩 長電話九三四

辯護士 李儀珩 電話八一四番

東信商會

木浦府務安通 司法代書人 金武賢

南興紙物商會 電二三三番

司法代書人 朴宗己

甲子屋帽子店 電話七三四番

木浦府榮町 海陸物産 委托賣買 三益商會

木浦府南橋洞 崔成吉

中央齒科 醫師 盧基燮

木浦府陽洞 金八用

木浦府竹洞 昌信旅館 電話六三六番

海陸物産委托賣買 崔永奐商店 電話七〇三番

安岡醫院

安佐邑洞 吳炳稷

布木商 趙福泰

安佐邑洞 金炳甲

府會議員 宋文玉

府會議員 裵奉休

府會議員 徐南圭

光鮮印刷所 長電話五三七番

木浦府常盤町 東亞護謨總販賣部 申永均 電話七四七番

# 謹賀新年

## 咸安

郡北面下林里
郡北面協議員
趙三奎

法守面事務所
面長 趙利濟
外職員一同

郡北面東村里
李璀九

山仁面內谷里
趙鏞夏

咸安邑內
咸安警察署

代山面西村里
人蔘栽培業
安富烈

咸安邑內
共濟醫院本院

咸安驛前
共濟醫院分院
醫師 朱世正

咸安面大山里
李璟根

郡北驛前
◉運送店
主 趙性植

郡北驛前
朝鮮日報咸安支局
支局長 趙徽植
書記 安昌濬
書記 安平波
書記 趙李濟

郡北驛前
郡北協同組合

咸安驛前
綢緞布木雜貨本店
郡北驛前
綢緞布木雜貨支店
主 趙鏞卜

咸安邑內
咸安郡廳

郡北面事務所
面長 李漢根
職員一同

代山面事務所
面長 安士烈
職員一同

郡北驛前
郡北金融組合
理事 神谷兩一
書記 趙璂煥
書記 李悅宰
書記 李璨秀

咸安驛前
第二咸安水利組合
理事 中島誠四郎
書記 安泰中

山仁面事務所
職員一同

伽倻面伽倻里
趙瑨奎

咸安郡漆原
道會議員 金性倈

伽倻面儉岩里
李壽勳

山仁面內谷里
衷中久禮 趙鏞吉

山仁面內谷里
趙億濟

郡北驛前
郡北駐在所職員一同

郡北驛前
郡北面協議員
趙鏞瓘

郡北驛前
藝妓 崔鏡波

郡北驛前
藝妓 朴錦華

郡北面東村里
郡北面協議員
趙鏞惇

郡北面明館里
李泰述

代山面平林里
面協議員 金熙權

郡北面小浦里
姜大澈

代山面富木里
面協議員 衷中久禮
李顯榮

咸安驛前
雜貨商 梅原商店

郡北驛前
郡北郵便所長 桑原辰吉

咸安驛前
成業會社咸安農庄長
德永茂登一

郡北面東村里
趙性濟

郡北面德大里
金鍾源

郡北面德大里
面協議員 衷中久禮
崔漢翼

郡北驛前
殖產組合

伽倻面新音里
朴俊秉

咸安邑內
三山醫院
醫師 余永煥

郡北驛前
咸安電氣株式會社
上田生

郡北驛前
壽石旅館
趙壽石

郡北驛前
綢緞布木 煙草許商
天增泰

咸安驛前
允完兄弟商會
鄭允完

咸安驛前
料理業 太陽館

咸安驛前
司法代書人 尹大熹

山仁面內谷里
山仁釀造場
李珍永

伽倻面儉岩里
儉岩釀造場
玉壽命

郡北驛前
順元醫院
李冕洙

咸安邑內
司法代書人 趙英來

郡北面小浦里
郡北面協議員 姜大述

郡北驛前
海星醫院
醫師 金相斗

郡北面東村里
趙樽濟

咸安驛前
綢緞布木商 安琪烈

咸安驛前
雜貨商 吳世駿

山仁面
趙鏞瑗

伽倻面儉岩里
李顯基

咸安驛前
郵便所長

郡北面東村里
趙鏞述

郡北驛前
郡北公普校長 西正良

郡北面東村里
趙鏞佑

郡北面東村里
郡北面協議員 卞純燮

法守面江州里
江洲釀造場
黃且判

法守面輪外里
洪命大

代山面富木里
李壽泳

郡北驛前
司法代書人 趙鏞璨

郡北面東村里
李在善

咸安驛前
伽倻駐在所職員一同

咸安驛前
伽倻面長 尹仁孝

郡北面下林里
趙鏞式

郡北面小浦里
金東八

郡北驛前
田原美髮館
田原銷

郡北面東村里
趙鏞均

咸安面末山里
李鉉淑

伽倻面伽倻里
安昌洙

伽倻面伽倻里
安泰洙

代山面平林里
盧文植

## 順天

全南光陽郡
崔圭善

全南光陽郡
光陽河東光州線
光河自働車部
洪在丰

全南筏橋面
南鮮貿易株式會社
社長 徐珉濠
專務 徐采濠

全南順天雙岩
面長 申喆休

全南順天本町
土木建築請負 煉瓦製造販賣
有松政夫

全南順天邑
邑事務所

全南順天長泉面
徐丙奎

全南順天
金曜會一同

全南順天
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全南順天樂安
面事務所一同

全南順天
東亞婦人商會 順天支店

全南順天
仙巖寺

全南順天
裵炯周

全南順天
松廣寺

全南順天松光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順天本町
順天自働車株式會社
電話一一七番

順天金谷里
鍮器工場
李元培

全南谷城郡
石谷面長

全南光陽郡
面長 朴準祥

全南順天金谷里
禹珪桓

全南順天別良
面事務所一同

全南順天郡廳前
半島洋靴店
杜炳泰

全南順天
金銀細工 서울商會

全南順天榮町
天和堂藥局

全南順天
大坪農場

全南順天
禹鍾桓

#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五

## 平壤 新年마즌平壤에 重要問題兩件

平壤 一記者

서부 조선지방의 웅도이며 상공도시인 평양에서 일천구백삼십사년에 중대히 취급되여야할 문제는 하도 만흘것이다 그러나 단축한시간과 제한잇는 지면에 전부를 발표할수는 업슬것이다 그럼으로 그중에서 중요한 멧가지를 적어서 일반에게 소개하기로 한다

### 商工協會問題

평양의 상공업자일백이십여명의 발긔로 소화사년십이월에 원대한포부와 만인의긔대리에서 가장씩씩하게 소래를치며 창립된것이 상공협회이다 신시가에번영회(繁榮會)가 잇서 일본인상공업자를옹호하고잇는것과 맛찬가지로 구시가에서도 상공협회가 창립되는당시에는 크다란역할을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수년이래 회원들의의무불리행과 동협회지지열의감쇄로인하여 작금량년에는 아조침체상태에빠저 동회의존재조차알수업슬만침되엿다 리유업는파괴는 저대로볼가하다 이것은죄악이다 더욱이잇서야할긔관을 아모리한리유도업시 지지하지도안코 의무도리행하지안어 상공업의지도긔관인 상공협회의 기능을상실케하는 죄과를 뉘가질것인가?

이제 상공협회가 창립되여활발히활동하든때의 임원들과 동회의 회장으로 발표방식하든 회장오윤선(吳胤善)씨의 금후감상담을소개하는것으로 이문제는 끗치기로한다

### 新活躍을 全心研究

商工協會長 吳胤善氏 談

우리평양에 가장필요한긔관인상공협회가 간부들의의무능과 회원들의 의무불리행으로인하여 침체상태에 빠젓다는지은회장된자신으로부터 엇더케진사를해야조흘지몰으겟다 그러나신년벽두부터활동능률이잇슬간부는마저새로운 협약을하라고 목하궁심연구중이다

위선 집회장소 상공회관이라할지 상민구락부라할지상공인들의집회회관을 만들고제이단으로 상공업계에대하여 진력코저함으로 일반부민의 특별한후원을바라는바이다

### 電氣統制와 府電賣渡問題

장진수전(長津水電)이 서조선의전긔를통제할목적으로 위선평양전흥(電興)을의시하여 조선송전(朝鮮送電) 진남포전긔(鎭南浦電氣)서선전긔 (西鮮電氣)등사사가 합동하기로되여이미인가지령까지잇섯고 제일회사장까지 선정되여 진용이성립되는동시에 금춘일월중순경부터 사무를개시하게되엿다 사사의합동으로 서조선전긔가창립되여 서조선의전긔가 통제되기로서니 평양부민과무슨관계가잇슬바안이나 여긔에서중대문제라하는것은대세에수응한다하여 평양부전을 통제권내에 팔어버리라하는데서부터 자연히 우리의 중요문제화하랴는것이다

대체 평양부전이 설립되기까지에는 실로칠개년간이란 장구한세월을 사설전긔주식회사인 평양전긔주식회사를상대로 소등동맹(消燈同盟)까지 단행하여가면서 피가나는싸홈을하여 급기야 성공하엿고 부전으로화한후에는 전국각도시에비하여 가장싼전등료금을 지불하여 부민의직접리익을 밧고잇는것은 재론을불허하는바이지만은 이보다도 평양부의 재원(財源)이라고는 다못전긔수입에 잇슬것으로 매년최소한도 삼십만원이상을 일반회게에 편입하고잇서서 평양부민이 간접으로 리익을보고잇는평양은가장크다 의전긔리익 삼십만원 이라는것은 당국이 가장서게불으는 수자로 기실은 칠십만원 이상의순리익을 밧고잇는것이 사실이며 긔채원금으로 전부한상하는 때에는 백만원 이상의순리익을어들수잇서 평양부의유일한 재원이될것이다 이상과가튼부전을 평양부민이 칠년간이나 싸워어덧고 또한전긔수입의순익으로 직접간접으로 리익을밧고잇는 평양부전을 이제합동전긔에매도한다는문제는실로중대한문제라안흘수업다 그럼으로 우리부민은 철두철미부라사자와 부회의원들을언론중 감시하여 우리평양부민의 백년대계의 한아인평양부전을어대까지평양부전으로 유지하여 영구한우리의리권으로 보호하자 금년중에이문제는 구체화할것임으로 우리부민은 우리의의사활을 좌우하는부전을최후까지 감시하자 일치단결하야 우리가반대하여야 될중요원인은 다음의과목하는 리유가잇는때문이다

▲賣渡反對理由

一、平壤府電은 平壤府의唯一한財源인同時에 府民의血汗의結晶物인것

二、民營會社가되다면 年配當最少限度八分乃至一割以上을必要로하고 社長以下重役의俸給 賞與金 重役交際費、機密費等等을 要하여 消費者에게絕對不利益한것

三、平壤府의電氣料金은 他處에比하야 第一低價일뿐안이라 年三十萬圓의 剩餘金을가지고잇서 起債의元利償還하고도남어서 每年數十萬圓式을 一般會計에編入하고잇는 狀態임으로 二十年後에는 起債全部를 償還하고도 剩餘金이一個年百萬圓을不下할터임으로 府電讓渡云云하는것은 平壤府財政을危地에陷케하는 愚策인것

### 永久策을爲해 商工校設置絕叫

平安고무工業社長 金東元氏 談

평양은 천연한산물과 지리상으로 보아서 상공도시이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됨에따라평양이 발전될것은 명확한사실이다

최근에는 청년재산가 로도『데빠-트』를 만들고 고무、양말、제모(製帽)등 공장들을속속설립하는것은 우리 평양의면목상 또는발전상 크게깃버하는바이다

그런데 나도이상으로서만족을말함이 안이고 이로서우리평양은 더욱 발전성을가지고 커진의정을 강구하지 안으면안된다는것이다.

어떠한시긔에서 금융업자의긴축도고려할바이며 대재벌과거상의진출도 가외하는바이다 그럼으로서 중소공업자들은업자간의통제긔관을 설치하여산업합리화를도하여야되겟다 상업자로서는 합자긔관(合資機關)을설립하여 지방산물의장려 외래물품의 조절책으로서영업긔관을만드는것이 반다시잇서야하겟다

이상을생각하여서적의한상공업자의 긔관을노키는동시에장래영구책을위하여 상업、공업의고등학교 설치를 부르짓는바이다

# 村落에서都市에 都市에서村落에

### 定州 文化向上과 邑村間의融合

李昌健氏 談

우리정주는력사상으로유명할뿐안이라平北의중심지대인데신구개읍면으로난호여 잇스며신삼만여인구가 사는고을이다 이제정주의현상을 보건대 옵에는군청 경찰서등은 물론재판소등특수한 관공청이 만어관리촌의감이 불무하다 정주의상공업은 빈약하기짝이 업스나오직조선의 특산인납청정의유긔(鍮器)산二十만원)와 평북에서도굴지되는 고읍의 산합과정주의삼협이며 기타 수십곳의미곡상이한낫 할긔를띠고 잇을뿐이다녯날에는 정주가 물화의집산지가되어 잇드니 오늘에는녹덕한소매상한곳도 차저볼수 업스리마치저막과 쇠퇴함을 보여준다이제그원인을 생각컨데 문화적으로뒤써러저서 경제에눈이 어둡고 자본의결핍과 농촌의 여지업는 피폐로구매력 감퇴등 일것이다 은행、금융조합을 통하야 매인당 이백여원의 부채는수자적증명일갓이다

엇지하면 우리정주의 번영을꾀할수잇슬가? 문화향상을도모하야 경제의식의촉진과 읍촌간의 룽합으로자금의 원활을 도하고서야정주의 번영을볼것이다 오늘까지는 읍내인심이야박하야농촌자산가가 읍민과사업의공동경영이며거래를열체긴은현상이나하루밧비이현상을입시하여야할것이다그리고정주에도문화에대한만은시설과 중등교육긔관을 설치하여야할것이다 오산고보가 잇슴은이니 오직어면독지가의 출현을기다릴수밧게…정주군하에보통학교 사립학교 계량서당 야학등을동하야 취학아동이 칠천여명에불과하고 미취학아동이 삼만이나잇스니 큰문제의 하나이다 오직우리는 중등교육긔관의 설치와 문화계발의 향상과 읍촌간융합으로 자금의원활을 도모하야 상공업의 발달을도모함이 내고향발전상 첩경이될것을 다시금 말하는바이다 ◇寫眞…李昌健氏

### 永興 내地方特產의 明紬生產奬勵

金光翊氏 談

나는 무엇보담도 그지방의산업방면이 발달되엿다면 번영이될가 합니다 내고향의번영이라니 현상을 보아도인구십삼만의 일대군으로 교통이 사통팔달한오늘 농상업도 여지업거니와 공업방면에는 전부가착안치안는관계상 이럿타 할만한 번영책이잘나서지 안습니다 첫재로 영흥의특산품인명주와 잠종(蠶種)문제입니다 잠종이 잘되구야 명주의생산이 풍부하게되는데 녕녀이농촌의 잠종현상을 본다면 뽕(桑)의 희소한관계로 큰고동을방음으로 상목(桑木)의번식을 도모할것이며 명주역시지금 판매통제의 소리가놉흔이때 산업조합당국은 좀더생산자를 위하여로력하여 준다면 이것도 한가지의번영책이 될가합니다 우리영흥인사들도이공업방면에 진력을다하야 나간다면 번영의길이 들아올가 밋습니다 ◇寫眞…金光翊氏

### 開城 專賣制度撤廢 眞正한人蔘市化

高麗蔘業社長 孫鳳祥氏 談

우리개성은오만인구가살며수백년래의상업도시로서주민은상업에소양이만코 건금절약하야생활을도모함에 예민합니다 부(府)로승격되엿스니 원측상시설을가하야 대발전을 긔할것이나 부민의힘으로만은 자연발전이 더딀것이요 힘이만히들더인족 당국의 지도와원조를바라지안을수업습니다

一、공업을 촉진하야 민간사업도장려원조 하려니와관영공장등의시설이 잇서야겟습니다

二、개성은 산수가 수려하고 긔후가 조화의생에 적당하고 근검미풍이 청년에게모범되기에 넉넉하니 교육도시로특정하야 중등학교나실업학교를 더설립하야 지방청년을모아 양성할것입니다

三、교통의편의를 주어대도시의농수련락을 취할것이니연해선(延海線)이토성(土城)에 끗친것은대단히잘못된것이니 속히 개성역(開城驛)에 연결시켜야되겟습니다.

四、우리인삼(人蔘)이야말로하날이주신 특산물이라 그경영에따르는 물자와 품갑이십만생령을 살니우니 참위대한농업이요 홍삼은 신약으로유명하야·역시 내외에서수용하나 단지 백삼만으로 개성발전을론의하지 못할것입니다 백삼은 원래 약재인고로일반저상품이 못되고 홍삼은특히수출하기 족한세계적 상품임으로 백삼을 적게하고 홍삼늘만캐하여야 농상이 가티커질것이나 금일의 전매제도를 일변하야 개성을 진정한인삼시장으로 화하야 피차간왕래교역케한다면 그번창은 말할것업습니다 개성은삼을 잘되게하는데 번영을 볼것이라합니다 이와가티 번창할소질이풍부하고도 발전을 보지못함은상습에만 억매여진취의 관법이적은까닭입니다요컨대일치협력하야나아갈것입니다. 끗

### 元山 漁業奬勵와 遊園地利用

體育會理事長 安南奎氏

어느지방을 물론하고 그지방의 번영에대한 그대책은 현하저회(低回)하는경제기다모든분제에 잇서서 구구할것입니다。 더욱이 내고향『원산』에 대한그 번영책은 다른어떠한안도 만켓지만 나의 번영책이라고할만한것은 다음몃가지을 들어말하려합니다

(一) 어항(漁港)이니만치 다시로할배는아니나 좀더 어업장려에 특수책이 필요하며

(二) 무연항의 본색을 더한층 발휘하기위하야는 평원선속성이 시급하며

(三) 아죽공운설계가튼말이나 내지발원산늘강원도에 편입하고 동도의 도청소재지로서 한도의 행정중앙지대화 하는것이 번영책의 하나인데이것은각금 화제에 오르내리는 문제이니만치 지금말하는바 그운동이필요하다고보며

(四) 지역상으로보아세계적 탐승지인 금강산의 관문이고기타석왕사삼방등명승의지대를주위하엿스며송도원명사십리가튼 명승이 소유되여잇슴을보아적게는전국적유원지며 크게는세계적유원지의 자격을가젓스며 도는의생려지방이나만치 이를리용하야 번영의일책을엇는것도무리는아니다 나는법서부터 구주『歐洲』려행중에서 이것을늣긴바이니 서서『瑞西』가튼나라는 국산적수입이라고는그나마 라의명승을 일종배경으로하여가지고 유람객의잡담과함게크다란수입을보며 번영을엇는것이다 내고향 원산도 이러한데싹지지아니한다는것을 말하며 끗으로말하려는것은 시구『市區』확장을본 오늘에 시가정리와 도로수리가긴무임을부언한다 ◇寫眞…安南奎氏

### 原州 產物輸出奬勵 指導機關組織

朴忠模氏 談

원주는 현재이만여호인구십여만이 거주하는 강원남부에일홈노픈고을이다 재래로 기한을모르고태평가를부르고안일한생활을꿈구든내는녯일이되고지금에와서는 전군에구한말보는 집한농민의주머니는말二고상업계는판매액이격감하야처처에탄식을부르짓는 현황의와중에 드러가해메이는중에잇습니다 그리유는수출보다수입이초과되는까닭이라하겟습니다 우리 지방에서수출되는산물이라고는곳치、곡물、소、맥송류에불과하고수입품은직물、철물、해산물、잡화、가용품비류인바 여긔대한 수자는밝히말하기어려우나수출물보다수입품이몃배에달한다는것은누구나긍정할것입니다 그러니어떠케우리의 생활을유지해나갈수잇겟습니까? 그런고로 뜻잇는인사는 각성하여 수입에대한 수출품을만히 만드러내도록하여야 될것입니다 산출물이라하면 공산물도조코 농산물도조호나 공산물은원료를 대개다른지방에서 구입하여야 될것이니 좀어려운다할지모르나 농산물에대하여는 힘쓰는대로 그만큼한효과를 볼것이라고 밋습니다 토지를개량하여 산미를증식시기며 특히부업을장려하야양봉、양잠、양우、양계、양돈、대마、목재등의 증식을 도할것입니다 의 립야가잇으니 삼림을배양하야 목재를다수수출토록하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군내에교육、교통、위생등시설문제가 만으나 우리는 솔선하야 산업장려긔관이될만한것을 조직하고 거긔대한방법을강구하고 일편 그시설에 진력을하면 멧해후에는 수출초과가되리라고밋습니다

### 安州 商工協議會와 教育機關充實

金秉奎氏 談

안주는토착경제인 농업의 긔반이확절된곳으로 다른고을과는차이가잇습니다 압으로 발전될가능성이만코 현재이상 쇠퇴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습니다 번영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잇슬니다 첫재안주를 상공도시로 만들기위하야의 상공협의회 가튼것이 조선인측상공업자의 손으로 회수입이나 수출상 중요하야합을하여야 할것이외다 현재번영회가 잇다하나 이것은반편반면단체인만큼 특별한효과가 잇든것갓지 안습니다 순전히 조선인으로 설립된상공협의회가 생기도록하고 유리한기업을발견시여조선 중소상공업자의발권을 긔리려 관계와가티 상업이진흥되며따라서번영이되리라고밋습니다그리고안주로서가장절실히늣기는것은교육긔관이부족한것이외다조선인의경영인사립중등학교한아가업는것은안주인사의 수치며 손실이외다 간이한상공학교가튼것은 특별한적립금이업시라도 될수잇는것인우안주재벌들이약간힘만내인다면곳될수잇는것이외다 교육을바들청년시대에 교육을밧지못함으로 랑비하는금전만 모흔다면넉넉히될수잇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소화수리조합이요?그것은본래부터유해무익이니까요 그러나된다면 사무실이안주로 왓스면하는생각은 가지고잇습니다

◇寫眞……安州金秉奎氏

### 農倉建設과 米檢查所復活

開城商工會議所頭 金正浩氏 談

개성발전책을무르시나 특별한의견은업습니다 그러나간단히생각나는대로 말삼하면 다음과갓습니다

一、朝鐵海州線의延長 현재토성(土城)지점을개성까지연장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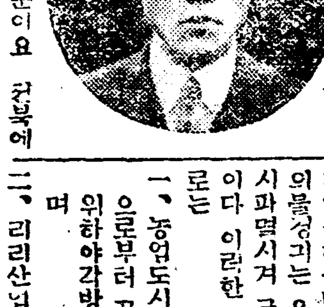
二、農業倉庫의建設 속히농업창고를건설할것

三、米穀檢查所의復活 개성에미곡검사소를속히부활식킬것

四、公商校의學級增設 당지공립상업학교는 단학급(單學級)인바이를선히저로각반(各班)을두학급으로증설할것

### 裡里 農業都市로서 商業都市에로

金炳洙氏 談



리리는지금으로부터이십이년전에는칠백호에불과한빈약한시장촌이엿섯더니 호남선철도가 개통된이후로 장족의 발전이되야오늘은 사천호에 일만팔천인구로 호남의 관문이요 전북에 유일한 경제도시인것은 세인이 다인정하는바이다 단군수년래의불경긔는 우리 리리를여지업시파면시켜 극도로 비참한현상이다 이러한 내고향의발전책으로는

一、농업도시이든 리리를 지금으로부터 공업도시를 만들기위하야각방면으로로력할것이며

二、리리산업 조합이 당국의허가까지되여 업적이 점차량호하여짐은 우리지방 발전책으로서 과히경하할바이나 사업계획안에 잇서서 직조와비로대부는 하로밧비 실현하기를매우 희망하는바이다 이사업을속히 실현함에는 당국의다대한 보조를 필요하거니와역원과 일반조합원의 일치협력이유일한 요소로 생각하는바이다 ◇寫眞은金炳洙氏


# 謹賀新年

錦山

鎭安郡顏川面 魯泉金鑛

錦山邑內市場 錦山蔘業組合

錦山邑內 濟衆醫院 李殷桂

朝鮮日報錦山支局 支局長 朴允宗 記者 朴贊吉 李敬儀

錦山郡南一面皇風里 全北道會議員 朴贊勉

錦山郡 富利面職員一同

錦山耶蘇教會 長老 任九桓 任健熙 米國文學士 任永信

錦山邑市場 錦山人蔘 都賣散賣商 昌信商會 主 高昌玉

錦山邑市場 綢緞布木 和洋雜貨 婚具一式 酒類製造 東一商會 宋南洙 宋明洙

錦山邑市場 綢緞布木 和洋雜貨 婚具一式 和信商會 主 高善玉

全北錦山邑 洋服洋靴商 京城屋 主 朴英臣

錦山邑內 有志 崔在榛

錦山邑市場 시에론레코-드特約店 宋錫球時計店

錦山邑市場 綢緞布木商 共榮商會 主 丁祺宗

錦山邑內 有志 金聖佑

錦山邑內 新成旅館 高仲根

錦山郡廳 錦山林友會

錦山郡 富利面職員一同

錦山郡南一面皇風里 全北道會議員 朴贊勉

錦山郡 錦山警友會

錦山郡 私立錦山基督心光學校職員一同

錦山郡 錦山郡公立學校長會

錦山郵便所長 赤星赤水

錦山郡 錦山面職員一同

錦山郡 錦山砂防事業所 職員一同

錦山郡 濟原面職員一同

錦山郡濟原 金平局

錦山郡濟原 許光石

錦山郡濟原面鳴岩里 金澔成

錦山郡 秋富面職員一同

秋富郵便所長 渡邊松

錦山郡 珍山面職員一同

錦山郡農會 各係主任一同

錦山郡 錦山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錦山郡濟原 濟原釀造場 金仁貴

錦山幼稚園 園長 金善昌

錦山邑內 明月館 金永根

錦山 吉相穆

錦山 江景館 劉惠貞

錦山 錦山郡廳 職員一同

錦山邑內 朝鮮料理 錦山館 鄭必鍾

錦山邑內 錦山麯子製造組合 電話一三番

錦山邑內 錦山運輸株式會社 電話八番

錦山邑內 寺井改次郎 電話四番

錦山郡濟原面桐谷里 有志 李鍾夏

錦山邑內 阪本宗十郎 電話一七番

錦山郡 南一面職員一同

錦山郡 錦城面職員一同

錦山郡珍山面邑內 有志 柳永根

錦山郡秋富面馬田市 秋富釀造場 李秀榮

通川

通川郡 五月會

通川郡歙谷面 田夏富

通川郡通川面芳洞里 劉錫堯

通川郡臨南面斗岩里 史景淳

錦山郡郡北面外台里 郡北面長 李鉉奭

錦山郡 郡北面職員一同

錦山郡郡北面內台里 有志 全琯鎬

錦山邑市場 宋榮堂洋品店 宋秉岩

錦山邑市場 金青山

錦山邑市場 錦溪醫院 李鍾善 電話九番

錦山郡 南二面職員一同

錦山郡邑內 有志 崔在寬

錦山邑市場 資生百貨店 李輔允

錦山郡邑內 朴守東(根)

錦山郡邑內 有志 趙文衡

全北錦山 文化印刷所 在禧準

錦山郡福壽面水心臺 福壽面長 趙熙壽

錦山郡 福壽面職員一同

通川郡臨南面壹白里 壹白青年會長 李根植

通川郡臨南面明文岩里 崔麟煥

通川郡碧養面桂谷里 崔南九

## 文藝

# 一九三三年의 朝鮮文學의 諸傾向과 展望 (三)

林和

### 二、深化하여가는近代文學의危機

### ◇文學의思想性에對한새로운偏愛

누구에게도알여진것과가치、朝鮮의近代文學의 낡은部分의根本的特質은 그들이藝術의純粹性에對하야 絕對에갓가울만한固執을한데에잇는것이다。그들이 언제나呪文과가치 新興하는文學에對하야 뒤겨씨운非難의焦點은 文學이엇더한特定의

『思想』과精神에對하야意識的일녀고한다는곳에잇섯다 即『新興하는』文學이主로內容에置重하는것으로써藝術性을도라보지안코 同時에作品의內容=精神의高調는藝術性을破壞하야 文學을無價值한宣傳文으로 化하게한다는것이엇다

이것의 生生한現實的證明을爲하야서는 別다른 例를列擧할必要조차업는것으로 數年前新傾向派와藝術

『至上』主義派、特히朴英熙와廉想涉의論爭을보면 一目瞭然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文學의純粹性에對한 强調도 그것이中世紀的、封建的時代의貴族의文學이宗敎文學에 對하야 向하야젓슬때는 進步的이엇섯다 하지만그들의 文學의 生生한 現實的內容은 喪失되고、새로히勃興하는 階級의文學에 對해서向해질때에는 말할것도 업시 그것은 反歷史的인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은不滅의藝術性과 藝術의思想에對한非意識性=純粹性을가지고그들의

『空虛』한文學의性格을擁護하여온것이다

그러나 現實的過程의巨大한發展과 낡은世界의危機의急速한進行은 뿌르文學의性格을根本的으로다르게하엿다 朝鮮에잇서 民族뿌르와그追從者들이 이 公公然한『新』時代의體制』의擁護者로 歷史의前進하는過程으로부터물너가면 물너갈사록그들의이데올로기的 生活의全部分그中에도 가장複雜하게 이것에

『依存』하는藝術、文學까지가、最大의明確性을가지고 文化와藝術의 純粹性을放棄하엿다

이現象은 今日의藝術的 文學的發展의 內容을闡明하는데에잇서서의 最重要의問題로서 남은 世界의體制가 새로운世代의 體制에依하야 大端히강하게눌리기시작하고 그것에對한 明確한積極性을가지고 對하지안으면아니될만큼 모든事態가 急迫해진것을 말하는것이다

同時에 이것은 客觀的으로낡은世界가 避할수업는 危機가운데서잇다는것을 證示하는事實이아니면아니된다。

따라서 文學、藝術의純粹性放棄와、一定한思想、精神에對한끕하가는偏愛는、朝鮮의文學이 발서單一的性格으로서代表되지안는다는 現實에對한 自己肯定이며、同時에、그들이到達한藝術的達成의水準을、『過去의精神』에다 結付식히는것으로써 文學을退廢와退化의길로引導하는것이다

이點에서、그들이 新傾向派에對하야、文學이思想에對하야

『意識』的인때는、藝術을無價值하게만든다는非難이 그들의意圖와는全然反對의意味에서 眞理로서그들의머리우에나려안는것이다 웨그러냐하면 發展하는思想에對하야 左擠하는때 文學은現實의豐富한內容을眞實히反映할수잇고 同時에 偉大한藝術的發展이그運命우에

『約束』되는데反하야 歷史的으로後退하고잇는 思想의追從者가된때 文學은 現實의多樣한內容을그作品우에 담을能力을喪失하고 同時에 藝術的인完成대신에 瓦解가 發展대신에退化가 [illegible]대신에 멸망의孤寂이그길을茫茫하게되는것이다

朝鮮文學우에 잇서서 이러한 特定의思想과精神에대한意識性이表現되기는

『近代』文學의形成時代부터 理想主義文學等에 잇섯다고 볼수잇스나 特別히高調된偏愛가나타나기는 數年來의일이다 그들가운데의 가장有力하고指導的인作家 春園李光洙의作品가운데서 이傾向은비로소明確한狀態를갓추어가지고나타낫다

# 黑人文學 (三)

## 니그로文學의成長

韓雪野

一九二〇年米國國勢調査에依하면 『니그로』人口는 千四十萬 即米國全人口의一割이엿다 現在의全人口는 約一億二千萬이니 萬一이比率로내려왓다면 現在의아메리칸·니그로는 槪略千二百萬일것이다 一六六三年大統領宣言에依하야 노례해방이實現되던當時에는 全米國에四百五十萬(그中七分六은노례)하엿다。그러든것이 現在는 一割의比率로늘엇스니 그人口가增加하여젓슴을 알수잇스나 다만그것뿐만 아니라 文化方面에잇서서도

**長足의** 發展을 示하엿고 또그文化가 아메리카에寄與한바는 白人이아메리카에준것보다 本質과構造에잇서서보다顯著하고 보다特異하다고할수잇다 그들의 스피리츄알(靈歌)과뿌루스는 米國歌謠에『니그로民譚』은米國傳說에、『니그로·째스』(註)는 米國音樂에寄與한배크다 더욱歌謠、傳說、音樂等은 米國文化生活에잇서서 유니한것의全部라고생각하면 그寄與는 보다놉게評價되지안을수업는것이다。그러나 그固有한오리진인의文化는 그固有한오리지나리티를 거진喪失하는反面에서『니그로』의 文化만이거만하고

**輕佻한** 米國國民에게不拔의 色素를주는데에는그만한理由가 잇지안으면 안될것이다。『니그로』는 그單純한 挾雜物업는方法으로 아메리카的인表現形式、氣分、文學的잔듸、民俗傳說等을 助長하엿다。아메리카의白人은 歐洲固有의文化를 보다劣惡하게 繼續한데不滿하며 따라서 그러한 相續은 不可避的으로 아메리카的인文化를 發展식히지못하엿다。그럼으로 現實的이라는點으로보면 아메리카文化發展上에잇서서『니그로』는 白人보다도重要한 보람을남기엇다고할수잇는것이다。그들『니그로』는 經濟的、社會的——엇게말하면그生活全部에잇서서 言語를絕한逆境에 잇기때문에 그것을反映한그들의 藝術은 그呼訴에잇서서 보다豐富하고 보다自然的이고 보다

**魅惑的**이고 보다率直明確하다。『니그로』는 經濟的 關係로 또는 그特殊한 地位關係로敎育의恩澤을입을機會가 거진업섯다。그러나 그宗敎音은 엇더한本意아닌 注入的인習慣의蓄積을不可能하게하고 따라서그藝術을模倣的일수업게하엿다。例컨대 그들이白人의宗敎를採用하는境遇라도 그들은決코그形式을 그대로踏襲하지안코 그들自身의손으로서 그들의새로운形式과 새로운解釋을賦與하여 事實上 그들은 全혀딴것을 形成식혀섯다。그들의『敬虔』은 남은慣習도업고 엇던感하는『마음』에는 尊重의拘束을 것은藝術이고 엇던것은 藝術이아니라는 機械的、公式的인傳統도업다。그들은 文法이며穿鑿的인

**批評家**의눈에拘碍될것업시 잇는그대로 생각한그대로 表現할수가잇섯다。그럼으로 그들의藝術은 民衆속에서 自然發生的으로 生成한모든藝術이고 그러한것가티『技術업는藝術』에잇서서는 世界最高의것이엇다。白人이 自己의 藝術을創造하는데에 잇서서 그모델을 歐洲에求하고 自己의 藝術的努力에 對한 歐洲의 評價를 求하라고 턱을들고 잇는 사이에『니그로』는 그들自身以外의 如何한文化的喝米를求하라고하지안코 그素朴한가슴을그대로쏘다노앗다

그러나 아메리카共和國成立(一七七六年)當時는 말하자면 그들의文學은 아직崩芽期엿섯고前述한바와가튼 너무도甚한生活의구속과重壓때문에 그文學的表現이 다만

**空想的** 스피리츄알리즘에끈첫섯다 即그文學은 그들特有의內包를가진것이면서도 一種의宗敎的讚美歌와가튼 것이엿섯다。(註——『니그로·째스』가米國째스에寄與한一例로 昨年出來한 리차드의演奏에서 우리가비로소처음들은바조가 本來黑人의樂器로 現今째스音樂에잇서서 不可缺의樂器가되어잇다는것을들수잇다)

## 一九三三年…… 文藝年報 (3)

姜炎天『鐵路工事場』(꽁트—東亞九月)
姜永抱『逢變』(꽁트—新家庭五月)
姜 湖『朝鮮映畫運動의新方針』(評—中央四月)
姜鷺鄕『봄』(小說—第一線一月)
高裕燮『朝鮮古美術에關하야』(論—朝鮮五月)『現代世界美術界의歸趨』(論—新東亞十一月)
高在興『[illegible]의黎明』(詩—東亞新年[illegible]詩)
金南天『[illegible]』(小說—朝鮮三月)『男便그同志』(小說—新女性四月)『文學時評』(新階段五月)『물』(小說—大衆六月)『雜誌問題를爲한覺書』(論—新階級六月)『林和에關하야』(作家評)『林和에게주는 나의抗議』(評—朝鮮七月)『文學的稚氣를웃노라』(評—中央十月)
金海剛『새날의祈願』(詩—東亞一月)『少女의적은설음』(詩—新女性一月)『低級한詩壇』(評—朝鮮文十月)『그』(詩—文라三月)『그대의억개에花環을』(詩—全線二月)『그대여가거라』(詩—全線三月)『告白』(詩—全線四月)
金友哲『文筆家協會와캅프의態度』

## 詩 航海의一秒前

金起林

잠을 어르만지던
저근바람과가튼 추근한 어
둠의 愛撫
는갓다
눈포래가 빠저간뒤의 寂寞
속에 남겨진 나의皮膚에기
여드는 虛無한 느낌
거리。
工場들의 붉은 벽돌집
(『이스라엘』의牧者 들의 最
後의種族)들은
잠깨지안흔 한울에 향하야
그들의 角笛을 분다 (그들
은 또한 새벽의 使節의一
行인가)
어둠이 구비처 흐르는 거
리의 江邊에서는
羊떼들의 우름이 우지안는
가
健康한山脈들 사히에는 꼭
여진 힘 들이
傳說을 배고 누어잇고
風信機의 方向은
西
北
大中華民國의將軍들은 勳章
과 軍刀를 가른 풀무에서
빗고잇다
아마 兵士들의 骸骨들이 肋
骨에걸고
天國의門을 쉽사리 通하기
위해선가보다

太陽에 食傷한 患者의寢室
에는『國聯』의 衛生部長 『라
잇히만』이 往診을갓고
太陽에、營養不良이된『그린
윗취』마을에는 府의慈善團이
向하엿다 놀라운『뉴—쓰』의
洪水、行列。洪水………
파라帽子를 기우려쓴 佛蘭
西領事館의 꼭대이에는 三
角形의 旗빨이 붉은金붕어
의꼬리처럼 떳다 地中海에
서印度洋에서 太平洋에서모
—든바다에서 陸地에서
펄
펄
旗빨은 바로
航海의一秒前을 보인다
펄펄
旗빨속에서는
來日의얼굴이 웃는다
來日의 우숨속에는
海草의옷을입은 나의『希望』
이 잇다
褪色한藍色의 廢宮인바다에
서는 오래인 悲劇의看守인
아츰해가 진기지게를 켯다
日記冊을 떠렴으나
그러고 아직畢하지아니한悲
劇의 다른幕을 읽어라
아츰해가 黃金빗의 기름을
기우려 부어노은 象牙의海
岸에서는
푸른한울에 向하야 날지안
는 나의비닭이의 붉은다리
를 싸매는 나는늙은水夫다

## 創作의態度와實際 (3)

# 길을가면서 詩想을

金岸曙

元是文藝作品이란 하나에하나를 加하면 둘이 되다는數字式의그것이 아니기때문에머리속에 들어안즌 想그것과實際로 作品化되여 나온그것과는自然히 달나지지 아니할수업는것이외다

作者의苦心이 잇다하면 過半은 엇더케하면 머리속에들어안즌 이想을고대로 꼭가치 그려노흘수가 잇을가하는것 다시말하면 表現問題에잇는것이외다 써노흔것을 들어다보면 맘에 合當치아키때문에修正의붓을드는것이 나는 普通이외다 그러나 고친것이언만은 들어다보면 또자미가업서 또다시 加筆을하게됩니다 이리하야 들엇다보면들어다볼사록 加筆은 언제든지 하게되니 이것은아마 내自身의不才에 그原因이 잇는것이려니와 이러케 고친것과 最初의그것과 比해보면 내自身으로도놀낼만치 달나지고는합니다 그러타고나는 그것을作品아니라고 하지아니합니다 그리고 꼭이런것은 나타내야하겟지만은 도모지 그것을 나타내일만한 言語를 아모리 머리속에 차자보아도 업는境遇가 각금잇습니다 이런때에는 붓을던지고 여러가지로생각해봅니다 그러다가 번개가치 문득에 그想에 相當한글字가 떠우는때도 업지아니하나 대개는 여러날을두고두고 생각하게됩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詩作을하다가 생각지도아니한 副産物을엇게됩니다 甲이라는想을어더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랴다가 뜻밧게 乙의想이 머리속에떠올읍니다 그러면 甲의想은내여버리고 乙의想의表現에 從事하는데 結果는 도로혀 甲의想보다도 나흔것이 만흣습니다 이리하야 한物件에對하야 하나밧게 아니되든想이三四個또는 五六個로 副産物을 엇게되야 가른表題로 여려가지詩作을 한것은 대개는 다이러한것이엇습니다

나의經驗으로보면 문득생각되야 想이흘으는대로 써노흔것이대개는 加筆치아니하게될뿐아니라 또한 文章이라든지想이라든지가맥근하게되는것이 만습니다 加筆을하면 할사록엇재 그런지 딱딱해지기쉽고 그러치아니하면 用語에도 어색한것이 만하집니다。

또 그러고 제일 내自身으로도 이글字를써야조흘지 저글字를써야조흘지 分明한判斷을할수업는때가 잇습니다 이런때에는 이러케을펴보고 저러케읽으면서 音調와意味를比較도해봅니다 만흔 그러도判斷키어려운경우에는 알만한사람에게 詩句를들다읽어주면서 어느것이듯기조흐냐고 물어보기도하나 대개는 나의생각과는 달라지는것이 普通이엇습니다。

나는언제든지 『노트』하나를 포겟에넛코단닙니다 또도하지아니한때에 나의 머리속으로 想이떠오르기때문이외다 그러면간단하게 나는그大意를 적어두엇다가

**時**間을어더서는 곳創作에着手합니다 길을가든가할때에 鉛筆이면鉛筆에對하야엇던 想을 求해봅니다 끈찌아니하고이런생각 저런생각으로 詩想을求하노라면 그結果는반듯시虛되지아니하야 나의詩作大部分은 다그러한때의産物이외다

要는詩作이란 數學式의그것이아니기때문에 엇더한方法으로든지 그門으로들어갈수가잇는것이다 一九三三年十二月九日 城北洞에서

# 故鄉 【37】

李箕永 作 安夕影 畵

## 새로운우정 (四)

교대해서 등멱을감고이러선 삽분어머니는、수건으로 등을 닥다가、한손을들어서 내둘을 가리치며

『저게누구라우? 마릉대 아가씨안인가?』

『글세、그럼 또 하나는?…』

『참、그건도 누구일가。』

그들은 눈이두리지게 처다보는데、원칠이도그편을보다가

『우리 인순인가、오늘이 노는날이라구、이애가 집에온다드니만—。』

『그러큰、참인순이군!』

일꾼들은、인순이란바람에모두들 대화의총뿌리를 원칠이게로 돌녀댄다。

『아재는 딸두잘두섯지。인순이가 월급을타면、허리띠를끌너노섯지 뭐——』

『난、딸이나잇서야 그런데라도것지』

『딸만잇스면되나、그것도다ㅣ 학교공부를 해야되는게지』

『그러치、암、지금우리네처지로서야、어듸 아들이 잇기로서니학교치다거리를 할수잇나』

조첨지는 망내동이가 을에 겨우열살남짓한것을、나무지게를 지운것이、지금도 애색해서 한숨을 내쉬엿다

인순이와 갑숙이는 소가누은데서、상거가멀지안은 잔듸밧에 나란이안저서、이편을 바라보고잇다。

길동아버지(마름집아범)가、먼저이러나서 모춤을 논바미속으로 날느기시작하자、일꾼들은、곰방대를터러서、꽁문이에 끼우고 하나둘식 논둑으로 거러나왓다。길동아버지는 지게에질머진 모춤을내려서、먼데논바미로 힘껏내던젓다。모춤은 공중을 긋●고 물탕을치며 떠러진다 미구에 왼논바미는 새파란모춤이 벌녀잇다

『원칠이는 참용하거든 남은 아들도 공부를 못시키는데 딸까지 공부를시켜서 저런 소도를 보게하니』

『그려기에 무슨일이고 선등해야 되는법이야』

그들은 인순이가 마치 진사급제나한것처럼 떠들고 야단이엿다 그러나 정작 원칠이는 조첨지가 자긔를 부러워하는이상으로 인순이를 더 공부시키지못한것이 한되엿다 지금갑숙이와 나란이안진 인순이도 서울로 공부를보냇다면가、동무와가티 집에단이려왓다면、얼마나더김불것인가!

『말말우 나두소빼리나잇스면은 어느틈에올녀보내고、소득이라고는 계집애하나 보통학교공부식힌것밧게 업지안수。』

『원제 그러치、참 원칠이도 그만햇스닛가、공부를식혓지 업스면、어미아비제사도못지내는데 할수잇나』

『동부농 그러키도하지만、내남업시 몰나서 못가라친사람도 잇습는다。계집애는고사하고、산애자식도 머리깍고 학교에보내는것을 멋해전만해도 큰변으로;알지들 안엇소。』

『우선 나부터도 그랫는걸!』 허허허……。참』

『하참。세상은 무척 변하는세상이지。지금은 못가리처거정안이여!』

『그럼、삽분어머니모 오날밤 예가서 딸하나 만드시유。』

『하하하……인제만드러서 그걸언제 키워가지고……。』

『하!하!하!하!……。』

허벅다리까지 거더부친 일꾼들은、논속으로 드려가서 일열노 느려서자 모를 한줌식 모춤에서 때들고 심으기를 시작햇다。

진흙 물속은 모를꼿는대로 푸른빗을 띄여갓다。뒤미처 벼꼬기사이로는 유창한넉상사듸야!』소리가 흘러나왓다。

해볏은 어제보다도 더 뜨거웟다、구륵한점업는 한울에 불덩이가튼 태양은 그들의등허리위로직사(直射)한다、깟딱하면 그것은、그들의 등허리위로 떠러질것도 가티—— 아니 그보다도、태양은 벌서 떠러진것처럼、논바미속으로찬란하게 드려다보인다。

보기만해도징그런 그머리들은 사람의피를 맛고、사방에서굼실거리고온다、그러나그들은、그머리를 멸생각도안코、그대로 모를심는다。건가리의 그머리란 유명하기때문에、원체 하도만흔것을일일히 떼라다가는 정작 다른일도 모할지경이엿다。

『에!그머리란놈들 잘또터먹는다。마치보챙이 엉기는송아리떼갓구나!』

더칠이가 논둑으로 모춤을 가질러나오는데、그의두다리에는 콩멍석처럼、그머리가 새까마케 부텃다。

浦項
九龍浦飲食店組合 代表 金俊奎
迎日郡廳 松原利太郎
浦項釀造株式會社
浦項榮町 金斗河
浦項料理屋組合
浦項金曜會
滄洲酒造株式會社
浦項醫友會
滄洲面大浦 李雨珍
滄洲大甫區長 金斗洪
有志 金學洙
柄浦里 梁守煥
滄洲面協議員 李泳夏
慶北九龍浦 食料雜貨古物商 新興商店 張長石
九龍浦 趙景祥
有志 安鎔秀
九龍浦 高山烽
兄山面環湖釀造場 崔壽殷
浦項邑長 下村重英
大松商店 電話五三番
浦項 迎日麴子製造株式會社
浦項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浦項常盤町 青年洋靴店
延日面長 鄭泰鎔
烏川面長 崔應祥
浦項本町 一龍堂看板店
面協議員 吳鎭汶
滄洲面邱坪區 面協議員 崔柄浚
有志 金命先
滄洲面孔堂里 改良組合長 李鍾柄
東海面大冬背 面協議員 金有星
迎日郡滄洲面柄浦里 梁在顯
浦項 金東德
浦項本町 孫圭祥布木商店
浦項仲町 合同印刷所
浦項東濱町 鄭用守
神光 李源璣
慶北浦項本町 慶興洋服店 主 崔渠伊
迎日漁組特別議員 金斗滸
滄洲面大浦 酒造株式會社
迎日郡神光面長 崔憲澤

浦項 鄭錫晩
迎日郡東海面長 李洪珪
滄洲面城洞二區長 皇甫癸
東海面大冬背 金剛商會
九龍浦醫生 洪右植
滄洲面九沙區長 金應斗
滄洲面有志 金今道
大浦飲食店組合長 金景瓚
滄洲面九沙 姜鍾浩
九龍浦 李元淳
理事 許起善
靈光
白岫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弘農公普通學校 職員一同
金秉斗
朴勝允
郡南面東月里 金益瑞
金秉灝
白岫面大田里 表吉煥
白岫面下沙里 姜大馴
郡南面浦川 鄭鶴休精米所
大馬面大馬釀造場 李康韶
金興根
金圭亨
金明燮
大興電氣株式會社 靈光出張所
三星齒科院 吳龍柱
靈光郡內南門通 印刷業 豊美商會 (電話三三番)
文昌錫
文明佐

靈光郡內 一葉房 主 [illegible]
電話四五番 三光園釀造場 主 朴達鉉
長城驛前 貨物自動車部 靈光郡元興出張所
金秉斗
白岫面大田里 池龍會
池鳳雲
池東益
靈光水利組合
畝良面職員一同
弘農面職員一同
郡西面職員一同
郡南面職員一同
白岫面職員一同
鹽山面職員一同
佛甲面職員一同
靈光郡廳 同郡農會
郡南面浦川場 浦川產業組合
宗明小作人組合
靈光自動車部 (電話六番) 曹健鉉 曹正煥 李建鎬
鄭東金 (電話五九番)
郡南面浦川 李忍
法聖面職員一同
大馬面職員一同
靈光公立普通學校 靈光公立農業學校 職員一同

# 애기는성햇슬때 의사를보이십서요

## 아를쩍에절절매지마시고 건강할때건강을살피시요

새해에 드리고 시픈말

小兒科醫師 金重呂

제가 새해에 여러분께 하고시픈말을 드리기전에— 우리조선어린애들병가운데제일만흔것이 간기(肝氣) 복학 뇌막염(腦膜炎)등이 올시다그런데 일반가정에서 간기라던지 복학에대한 정체(正體)를 아는분이 퍽 적은모양입니다 심지어첫머는 애가푸른똥누는것에대하야 걱정은 하면서도 일종의신비감(神秘感)을갓는분도 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병에대한 정체를먼저 밝혀드리겟습니다

간기라는것은 요샛날병명으로 만성장카타-르(慢性腸加答兒)라고합니다 어린애들은먹는것이달라 즉 젖만 먹기때문에 푸른똥을 싸도 어른은 이병에걸려도 푸른똥을 안누니까 간기라는병은 젖먹기애에게만 한한병으로들 압니다 그런데 이병이생겨나는원인은 대부분이시간젖(時間的授乳)을 안먹이는데잇습니다 즉배고파우러도주고 어데가아퍼서 울어도주고 이러케 짬업지먹이니까 병이안나겟습니까?

그다음은 복학이올시다 복학이라는것은 만성말라리아(慢性말라리아) 즉학질 이올시다 이병에걸리면 비장(脾臟)이커지기때문에뱃속에자라가드럿느니해서자라배라고도하지만 학질인술아는분이 그리만치못하신모양입니다예방으로모기한테(蚊)안물리도록주의하십쇼 그러고 치료에잇서서도 그리얼른낫지안습니다마는 물론고칠수잇는병입니다

셋재로 뇌막염(腦膜炎)입니다 뇌막염은 어린애가 무슨병이고 아러서 열긔가잇슬때 우연생기기쉬운병입니다 가령말하면 간긔 기운잇는애라든지, 폐염에 걸린애들이 흔히 바람이나지안습니까 즉이바람나는것이 뇌막염의전조(前兆)인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염이고 간긔알른애는 원병보다도 대개뇌막염으로 죽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병에안걸리도록하자면 열긔(熱氣)를끼는병에 알치안토록, 엇잿든병에 안걸리도록하는것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폐염(肺炎)폐염에는 폐염균(肺炎菌)으로 해오는진성폐염(眞性肺炎)과 그대로감기끗테 폐가붓는 카타르성폐염(加答兒性肺炎)이 잇는데어린애 경우에는 이카타르성폐염이 대부분입니다 걸리지안토록하자면 감기에안걸리도록하고 불행이걸린는때는 빨리 의사의지도를 바더야할것은물론 방안에습기(濕氣)가잇도록 물을끄린다던지 물추긴 수긴이고기저귀가튼것을 방안에널도록하십시요

기외에 어린애병에는때따라 류행하는 전염병도잇습니다만은 다른기회로미루겟습니다

그런데 제가지금 여러분께 드릴말슴이라는것은 어린애가 병이나서 위급한경우에 의사를보이지말고 병이낫거든 하로밥비 의사를보이십시요 한시간이라도 일르면 일를수록 병도 수이낫고 비용도덜드는것입니다 그러고 더한가지말슴드릴것은 병나지안엇슬적에라도 의사를맛나 어린애의건강여부를 진찰하는것이 제일안전합니다 경성시내만하더라도 아동건강상담소가 여러군데되니까 일주일에한번이고정못하면 열흘에한번 어린애의건강진단을맛고 어린애건강에대한의론도 하시는 이좃습니다. 그러면 병을예방할수도잇고 보통사람이보아 얼른알수업는 숨은병을 고칠수도잇고 걸리라할때 그병을 짓눌러버리는수도 잇지안습니까? (文責記者)

# 入選童話 순이와빵장사 (2)

羊兒 盧良根

순이의 내여민손을나려다보면서 홍식이는 한참이나 아무말업시서잇섯습니다。

아마 너무도의외에 어쩔술을 몰낫든가 봅니다。

『순이가、순이가 이십전어치씩빵을살돈이업슬텐데……아니아것은 확실히 나를 동정하우는것이지、그러치만 순이도역시 나보다 나을것이업는데……』여러가지생각이 홍식이를머ㅡ니하니잇게한것이겟지요!

홍식이는 마츰내 순이의내여민손을 떼밀면서 한손으로는 빵한개를집어서 어느틈에 순동이의손에쥐여주엇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야、고맙다、그러나 그런림려는 맘어라、돈은제발 구만두어라、어린애가배가고픈모양이구나ㅡ』

하고 구지밧지안엇습니다。

『아니다、홍식아、왜그러니、그러지말아!』

『그러치만 네나 네나 빵사먹을처지가되니?』

『홍식아、그럼、빵은그만두고……너이、아버지 약갑에나좀보태써라 응ㅡㅡ』

『글세、순이야 아까부터 나는네가 왜、돈을 이십전씩이나 꺼내왓는지 다안다。그러치만、순이야 어서 도로가지고드러가거라』

하고 홍식이는 또한번 순이의 작고내미는 손을떼밀엇습니다

◇

순이는 마츰내 들고잇든돈을 홍식의메고섯는빵궤짝속에다가 떠러트려주엇습니다

순동이는 겨우이빨난입으로 어느새빵을물어뜻고잇섯습니다

『정ㅡ그럴리이면 얘다 빵이라도바더라』하고 홍식이는 오전짜리빵다섯개를 집어들고 순이의압헤내밀엇습니다

『빵은 이애가(순동이를가르치며) 벌서가지고먹는데 무얼ㅡ』하고순이는 물너섯습니다

『글세、왜、그러니? 어서바더라ー』

하고 홍식은따라가며 팔을내밀고섯습니다

『아、참、어머니 오시나 나가보아야겟다 넌어서 집으로가보아야하지안켓니? 아마 종일 빵을팔너다니다가 인젠너도집으로 가는모양인데ㅡ』

하고 순이는 홍식이를떼밀다시피하면서 홍식이가주는빵은 바들렴도안코 어서가라고하는것이엿습니다

그래도 홍식이는 바드라하고드러가거니 순이는안밧겟다고하고서로한참동안이나사양하엿습니다다순이는순동이업을떠들차즈려드려간다고 안으로드려가버리고 말엇습니다

그때까지 홍식이가서잇는것을보고는

『홍식아 글제 제발 빵을도로너허라!』하고 애원하다십히말하고는 그눈에 눈물까지 글성글성하야 지는것 가탓습니다 순이의 이진정을본홍식이도 그만눈물이 핑도는것을 느꼇습니다

홍식이는 아무말도터못하고 그만 손에들고잇든 빵을모다 자기메고섯는 빵궤작속에힘업시떠려드렷습니다 그제야순이는만족한듯이

『난 어머니오시나 가보아야겟다!』하고 한거름먼저발서름을떼여노키시작하니까 홍식이도 비로소새정신이난것처럼

『참 점점어두어오는구나 그런데 너의어머니는 여태쌀골르러다니시니?』하고 가리것기시작햇습니다 그의발소리는 얼마쯤 감격한음성이엇습니다

『그러탄다 그런데오늘은 별로(특별)ㄴ지시는데! 어머니가 웬일일까?』순이는 다른날보다도 어머니가 늦게까지 도라오시지안는것이퍽으나걱정되는 모양이엇습니다。

『다른날은늘더일즉오셧니?』

『그럼ㅡ 이러케 어둡도록 게시진안엇는데ㅡ 야ㅡ참 너어저 집으로가보아라、너이집에선 부모님이 오죽이나 기다리시겟니?』

『그럼、난ㅡ그만가겟다 순이야、참고맙다ㅡㅡ』

홍식이도 점점 어두어옴으로 그만자기집을향하야 발길을돌녓습니다。순이는

『잘가거라!』

이러케말하고 천천히거러가는 홍식의 뒷모양을 멀ㅡ건히바라보고서 잇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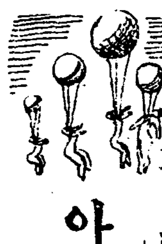
홍식이네 집식구는 알는아버지와 어머니、또 동생이둘 홍식이까지모다 다섯식구나되는데 홍식이말과가치 그아버지는 수도국공사에 일갓다가 다처서 두달재나 누어알코、그어머니는 빨내품을 조금식 파나 시원치안코 마츰내는 홍식이도 다니든학교를 그만두고 할수업시 한달전부터 빵궤짝을메고 나서게 된것이엇습니다。그런데 이날도 정신도못먹고(빵은팔것이니까 참아먹지못하고) 하로종일 골목골목으로 뒤지며『빵사료』를 웨치다가 어두어서야 도라가는길입니다。홍식의 뒷모양이순이에게는 이쩐지 가여워 보엿습니다。그러나 순이 역시 마찬가지 신세엿습니다순이네 집식구는 순이어머니、순이、그동생순동이 이러케세식구인데 순이어머니가 정미소에다니면서 쌀골라서 근근히 지내가자니 순이도 일학기까지는 홍식이와 한학교에 가치다녓스나 할수업시 집에서 애나보면서 집을직히고잇섯든것이엇습니다。

# 入選童謠 이사간순희

姜應孫

엇그제 바람부든날 순희네는
이사를갓소 업는줄 알면서
지나다보니 깃드는 가마귀
울며갑니다

入選兒童自由畫 『따리아』(大田日光學院三年生) 金寅一(十三歲)



# 輕氣球단粉魂群 (2) 아스팔트의딸 (2)

夕影

이녀자는 여러개중에자긔가 조하하는일홈이라는것은 영숙이엿다

우리가생각하면 이영숙이라는일홈이 케케묵은일홈갓겟지만 이녀자가이일홈을 즐겨하는까닭은 조선의 문인(文人)들이 소설을 쓰내면 허구만흔일홈중에서 또는제맘대로지여도 될것을 백이면백 열이면열이 모심고싯는일홈이 이영숙이라는 현모양처의 이마빡에 붓처도 조흔일홈을 좌우익(左右翼)소설에 쓰게되니 물론 이문인들은 조선사람들중에선구(先驅)이요 소위 첨단(尖端)을 것는 사람이라고 하엿고그들의소설에 흔히 나아 오는 녀자의 일홈인에 서슴지안코 붓처븐것이다 이영숙은 문인들의 일홈을 넘두리삽아불으고 그들의호(號)를 잘짓고못짓고까지를 평을하는만큼 그영숙이라는(하필영숙이뿐이리요.문인들의소설에인물의일홈이대개비슷하다) 일홈이 평을하자면 자긔에게는아조당치도안은일홈인것만은몰랏든모양이다

◇

대개 인테리녀성이란 안지면잔소리 누구를맛나면 드럽다악점을잡어들고 희혜내두리지만 제턱미테『연주창』자리는 말이업고 여러사람이모히면 양말을 내렷다가

다시 잡아다니는때에 념적다리를보히는것은 무슨까닭인지모르는모양이다

이 영숙군도 거기에한축이라면한축일것이나 그의입에서는 맑스변증법적、나치스못소리니 장개석 이런이야기만햇는고로 그와는다르다

또그뿐아니라 홍보사람은차(茶)라면 숙냉、외에보리차엽차나알겟스나 우리영숙군은 포스틈、카피、홍차레몽차코코아、등등그차에대한취미도바히시원난줄아는사나히면『라랑파라』냉치제과르껄고다니며유석긔소리에 차人잔뒤순구라으로 장난을마처보는서울의차당(茶黨)의녀왕이다

또그는 스포ㅡ쓰에대해서만 상식이업스면 안된다고 경성그라운드에 므슨운동이고잇스면 공人자표를어떠케든지 어더가지고간다

그는『럭비』도조하하지만『빽싱』을조하하엿다 그래서그는 서울에와서 다하(多賀)군을 괴롭게、는『단스추와ー드』군의 그노린내나는『벨리칸』새럽빗가튼 유체에제망을걸엇섭매개한것도 이녀자의『스포ㅡ쓰』열때문이엿슬것이다

一生의伴侶

하로에도 몃번이냐? 나는 네아페、나슨다
평생을 두고 죽는때 까지도 이러려니!
아ㅡ그대여 나의 면시만 비추어 주지말고 마음도 비추어주렴


謹賀新年

江景

鍋町 朴大成精米所
堤內里 尹貞默
中町 天愛堂時計店
堤內里 禹聖國
江景 李春圃
中町 南鮮木工場 金敬默
黃金町 崔斗湖
豆溪驛前 金容誠
新積里 尹相信
黃泰淵
舒川碧梧里 金容謹
世道 尹汶炳
佳積里 尹誠重
中町 林昌業
本町 果物客主 張志澤
中町 物産客主 金敬植
澤浦里 白南善
花亭里 李元九
北町 金良玄
驛前 朝鮮旅館 李相培
新積里 李鍾河
江景邑中町 公昌號貿屋大昌紙物商會 主 李英九
江景大和町 自轉車 蓄音器商 金昌根
江景大和町 古物商 玄相季
開安面長 林奎善
市外松山里 徐道錫
⊙朝運豆溪代行營業所 金容周 李秉烈

連山邑 李大植
市外鶯岩里 韓炳昱精米所
江景本町 大成館 主 黃錫鉉
江景市外 金沺鑛業所 代表者 李益雨
論山郡『道會議員』(忠南) 西島寅吉
連山 金駿鉉
良化 李豊鉉
笠浦 宋基萬
世道 林用善
[illegible]安 金鍾宇
石城 李載憲
[illegible]町 金容元
本町 張富善
連山 李鍾憲
堤內里 金德煥
論山阿湖里 金顯實

開原

開原附屬地 韓山旅館 朴基洛
滿洲國開原 三合精米 鄭晃極
開原 殖産公司 代表 具壽吉
滿洲開原 李晚馥
開原附屬地 和洋雜貨商 滿鮮商店 主 成性庫

市外[illegible]西里 尹漢炳
連山邑內 閔賢植
連山『代書業』 吳仁燮
江景中町 自轉車販賣 朴洙銅商店
江景百貨店 主 高義禎 電話一三四番
論山仁濟病院 李鎭求
江景北町 辯護士 南廷瓛
江景洋靴店 橫濱生命江景駐在員 朴魯吉
江景大和町 ラーヂオ自轉車及各種機械販賣 文鳳鎰
江景大正町 土肥醬油釀造所
江景東拓駐在員 原田茂雄
益山郡礪山面長 兪鎭圻
論山本町 總고무靴商 李龍九商店
扶餘良化 金仁培
開原大街 開原旅館 主 李錫潤
開原附屬地 和洋雜貨商 昌源商店
滿洲開原 金貞泰
開原縣小孫家台 朝鮮藥局 黃成 炳顯 仁昇
開原附屬地 特産貿易 精米精粟業 東泰合精米所 電話七二番

開原附屬地 朝鮮料理 萬歲樓 主 金永重
開原附屬地 信興鐵店 電話一九一番
開原附屬地 朝鮮旅館 主 李
開原東華街 一進精米所 崔承賢
開原朝鮮人會 電話二五三番
開原慶福街 特産貿易 精米精粟業 同信精米所 電話四四二番
開原附屬地 特産貿易 精米精粟業 東亞精米所 電話五四四番
開原海關街 特産貿易 委託販賣業 東盛商會 電話一八〇番
開原掏鹿大街 特産貿易 精米精粟業 開安公司 電話一〇九番
開原附屬地 布木 雜貨商 義信商會 電話一八一番
開原附屬地 福昌湖入 一般代書業 李根洽
開原附屬地 朝鮮料理 開原亭 主 安志根
鐵嶺金融會開原支會 金善淑 電話三六〇番
開原長壽街 精米 精粟業 開原公司 電話三八三番 第二工場電話二四番
開原掏鹿大街一五九 特産貿易 精粟精米業 朝鮮商會 電話三九七番
滿洲國開原大街 諸雜穀 精白米貿易 精粟業 信益商會 文鳳德 電話長三七二番 精粟工場慶福街電話五二七番 支店 滿洲鐵嶺、朝鮮清津

# 謹賀新年

## 長興

長興郡廳 職員一同

長興警察署 職員一同

酒造組合

改良麯子組合

海苔組合

長興初等學校 校長一同

辯護士 加藤孝一

南面事務所 朴熙文 外職員一同

長興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平面事務所 盧瀅植 外職員一同

郡守 金永壽

長興金融組合 德川軍六

鮮銀 長水癸巳夫

冠山金融組合 糸川雄隆

長平金融組合 辻粂次郎

朝鮮殖産銀行支店長 齋藤湛

長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大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靈岩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道會議員 金俸實

好生醫院 李珍永

長興面平化里 高東錫

代書業 周長鎬

代書業 郭漢善

代書業 金佑述

南面 金東麟

冠山面 協議員 曾田曉之助

冠山面 今村農場

有治面事務所 職員一同

長興本町 烟草販賣所 山元末廣

長興 森木重喜

安良面 朝鮮社會事業協會員 白柄寅

夫山面長 金永植 外職員一同

安良面長 金明植

冠山面長 魏大良

長東面長 李相轍 外職員一同

大德面長 李世玉 書記 柳錫來 朴基澤 崔裕星 金帛中 金道善 金鳳玉 申琫均

水門浦 三城酒類製造株式會社

冠山面 三山酒造場 魏復良

大德面 會鎭酒造場 宋昊燮

安良面 水養酒造場 宣炳良

大德面 李處玉

大德面 李方伯

冠山面 白守寅

長興本町 湖南商會 金性一

長興東部通 耕文堂 安章錫

長興市場通 紙物商 鄭基信

長興本町 崔仕益商店

長興本町 藥種商 朴日洙

有治丹山 魏鍾琯

夫山駐在所 野崎茂一郎

大德海苔組合 徐炫浩

大德海苔組合 金成五

大德普校 德島附屬校 孫石龍

大德普校 德島附屬校 都品郁

大德 朴遠永

大德 新上酒場 朴南贊

大德 成業社出張所 申命圭

大德 李商泰

大德 海苔檢查所 川西智

大德醫院 金亨基

大德市場 醫生 金容浩

大德駐在所 朴丁孫

大德 李東柱

安良駐在所 姜學道

朝鮮汽船會社 水門浦取扱店 塚本清

安良普校 尹允基

安良普校 洪俊燮

安良普校 藤代廣志

安良普校 李奉植

安良普校 吳有炫

安良 白亨采

長平普校 金福兆

長平 穀物賣買運送取扱 金炯善

長平 面協議會員 鄭淳萬

有治 文秉仁

安良面 協議會員 金炯明

長平面 協議會員 金正鎭

金鶴鎔

長興邑內 方基來

長興邑內 辯護士 李政相

長興邑內 鈴木純次

長興 産業組合 力武昇

長興東橋 三山堂藥房 金濟善

南面 金東鳳

南上公立普通學校 桂山分校 金旻奎

南上公立普通學校 田相奎

南上公立普通學校 金丙淳

南上駐在所 任鍾綵

南面 協議會員 金漢茂

南面 丁昌漢

南面 金馨植

冠山面事務所 金琳煥

冠山普校 金永釆

冠山普校 格和義郎

冠山駐在所 安秉武

無名氏

冠山金組 盧東洙

冠山郵便所 竹內虎槌

冠山今村農場 朴点龍

有治普校 金管洙

有治 文桂泰

有治 魏環奎

有治 白玗寅

魏鍾善

## 惠山鎭

大地主 郭日儉

滿洲國長白縣 南滿興業洋行

縣立醫院長 劉東熙

長白縣大寺洞 郭哥德

甲山郡普惠面大坪里 朴貞錫

滿洲國長白縣 長白縣公署

惠山線第十工區 志岐工業株式會社 生長出張所

甲山郡普惠面麗水里 金鳳洙

甲山郡普惠面大鎭坪 木材商 趙元奉

國境自動車合資會社 社長 廉箕俊 專務 金在赫 線路惠山鎭 大五是川里 保田里

咸南惠山鎭江岸通五四三 海陸物産 白菜委託販賣 崔賢淑

吉惠線合水驛前 紅松 杉松 赤松 落葉松 其他 製材 製函 遵丸 枕木 電柱 材木 太板類 原木 建築材 工事材 薪炭
元盛木材所 主 沈基淵 蒲下出張所 代理 廉良洙 東興出張所 代理 金銅鉐 生長出張所 代理 許東海

咸南惠山鎭 惠山警察署

惠山鎭郵便局

甲山郡普惠面事務所職員一同

惠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道立惠山鎭醫院

惠山鎭 酒造株式會社

咸南惠山 司法代書 張衡律

咸南惠山鎭 李能熙商店

咸南惠山鎭 李龍河

咸南惠山鎭 咸成館 主 李鎔弼

咸南惠山鎭 永熙商會 高永華

咸南惠山驛 朝日商店 主 金源澈

咸南惠山驛 平海寫眞館 主 金浩極

咸南惠山鎭 平南旅館 主 李元英

咸南惠山鎭新町通 海陸物産 委託販賣 丁致恒

甲山郡雲興面 申安所里振興會

甲山郡雲興面鳳頭里 우리商店 鄭東萬

鳳頭里 繁榮會

永昌商店

金源珉

甲山郡雲興面鳳頭里 醫生 劉永泰

鳳頭里 布木商 黃鳳善

京城日盛商支店 金勇泉 金鈗國

鳳頭里 布木商 鄭奇三

甲山郡 雲興面事務所 職員一同

甲山郡雲興面大五是川里 北鮮商店 主 卞行瓛

吉惠旅館 主 朴奎演

雲興公立普通學校

甲山郡雲興面大五是川市 代書業 金秉喆

代書業 盧秉律

德盛商店 金德顯

代書業 趙東夏

甲山郡雲興面大五是川市 惠山酒造會社出張所 趙來實

雲盛鐵工場 李英根

許聖七商店

雲興旅館 蔡淳粉

惠山營林署 五長森林保護區 姜泰允

韓鎭貞商店

韓商周商店

洪濬燮

青海旅館 金秉熙

甲山郡普惠面大鎭 大成醫院長 高貞默

甲山郡普惠面大鎭坪 豐山醫院 [illegible]

關北旅館 韓明信

甲山郡普惠面雲興市 雲興商店 金源榮

甲山郡普惠面普天堡 金炳澤

普興商店 林千明

金重鉉

永樂亭 金權濬

松興商店 林松春

豊昇商店 李仁昇

金榮商店 金榮海

昭和商店 申鳳石

北鮮商店 羽根安則

專賣局保田販賣所 羽根小三郎

吉盛商店 魏吉煥

三江釀酒會社販賣支店 張璨三

咸南普天堡醫院 保田公醫 中泳均

元德喜

安東朝鮮人會長白支部 長白縣中亨街惠山福生泰與交

大和藥房 主 程玉

長白縣立 初級中學校

長白縣立醫院眼科 文相勳

天道教長白宗理院

東亞醫院 院長 韓承炳 醫師 尚熙

長白縣十七道溝下里 區長 田南淳

長白縣遵化街 徐景泰

長白縣 文熙淳

長白縣遵化街 代書業 趙勳

世昌東旅館 方世鳳

長白縣郷約住所 卓昌奎

咸南新乫坡 木材商 朴昌鉉

甲山郡雲興五川是 五豊金鑛 鑛主宋公明